

이화동창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특별호

동창의 날 기념행사 / 올해의 이화인 51인 추대 / 빛나는 이화인 5인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동창회비는 동창회의 여러 가지 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동창회보 발간, 모교 기부금,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평생회비(또는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연회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회비 납부가 어려운 동창은 기존의 연회비 납부(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통해 총동창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50만 원 – 2016년 기준 만 60세 미만

30만 원 – 2016년 기준 만 60세 이상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지로 입금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http://www.ewhaalum.or.kr>

많은 동창들이 기다리던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총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과 동창들의 근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난호 《이화동창》도 언제든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 알립니다 앞으로 《이화동창》 회보는 1978년 이전 졸업자에 한해 발송해드립니다. 이후 졸업한 동창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동창회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창에게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이화동창》을 보내드립니다).





03

03

11

이화동창

2016년 여름 제143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8x64cm, 2004)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우(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윤혜숙(커미부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특별호

02 축시	창립 130주년 기념 축시
03 동창의 날 기념행사	세계 최고가 될 이화의 내일을 꿈꾸다
11 2016 올해의 이화인	이진민 동창 외 50인
14 리마인드 채플과 감사찬양제	이화를 지으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16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발레로 전하는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
17 총동창회 소식	각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장 초청 간담회 외 필리핀 선교 후보생들 방문
20 선교부 소식	박정자·김성미·안소영·송희경·진현미 동창
22 빛나는 이화인 상	곽배희 동창 외 11인
35 축하합니다	창립 130년,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36 이화의 이곳저곳	김재은·김태련 심리학과 명예교수와 제자들
40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4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식 개최 외
46 모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52 대학(원)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7 과(학부) 소식	남가주 지회 외
63 지회 소식	신금례 동창 외
70 동창 근황	『우리의 은퇴 후 여행기』 외 7권
76 동창이 펴낸 새 책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6년 여름 143호

발행 2016년 7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축시(祝詩)

– 이화대학(梨花大學) 창립(創立) 130주년(周年)에

시(詩)·초이(初荑) 김양식(金良植, 영문 54)



바로 130년 전,
높은 지덕(智德)을 겸비한 선인(先人) 있어 고귀한 뜻을 모아
이 나라 여성교육(女性教育)의 선봉(先鋒), 이화학당(梨花學堂)을 세우셨다

지난 130년의 길고도 험난했던 근대사상(近代史上),
한때는 우리 조국(祖國)의 존망(存亡)의 기로에서
세찬 비바람에 마구 흔들려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울부짖지조차 못했던 암흑의 긴 세월을
선현(先賢)들은 목숨 바쳐 지혜와 용기로 견디어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야만적 통치하에서
겨우 쟁취한 해방과 독립의 감격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야만적 남침 등—
우리의 조국 땅은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고 불탔다

허나 우리는 모두 뜨거운 일념(一念)으로 국가재건에 나섰고
굳건한 흥익(弘益)의 높은 정신과 슬기로
우리 이화학당(梨花學堂)의 교문도 다시 활짝 열렸다
다시 한 번 이끼 짙푸르고 탄탄한 반석 위에
맑고 향기 가득 여울지는 배움터가 마련되었다

거기, 이 나라 여성교육(女性教育)의 비옥한 텃밭이 전개되고
거기, 이 나라 여성교육(女性教育)의 푸르른 하늘이 눈부셨다

보라, 만화방창 향기로운 이화(梨花)의 꽃동산을—
사랑과 믿음과 지혜로 피어난 눈부신 인재(人材)들을—
그들은 이 나라의 빛이며 희망이며 미래(未來)임을—

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화(梨花)여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화(梨花)인들이여
찬란히 빛나거라 그리고 영원하거라!



이화 창립 130주년 특집 / 동창의 날 기념행사

세계 최고가 될 이화의 내일을 꿈꾸다

한낮의 기온이 여름을 방불케 하는 5월 31일(화), 이화 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동창들의 반가운 인사로 모교의 구석구석이 떠들썩했다. 흰 저고리에 화사한 분홍색 치마를 차려 입고 작은 부케를 든 ‘올해의 이화인’ 51명을 비롯하여 졸업 50주년(1966년 졸업)과 졸업 30주년(1986년 졸업) 동창 및 이화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동창들이 한데 모인 교정은 아름다운 배꽃이 활짝 편 꽃동산 같았다.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들의 반가운 재상봉

동창의 날 기념식에 앞서 최경희 총장 초대 오찬이 오후 12시 학생식당(졸업 30주년 동창 및 국내외 지회를 포함한 모든 동창)과 교직원 식당(졸업 50주년 동창)에서 각각 뷔페식으로 마련되어, 졸업 30주년 및 50주년 동창,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교를 찾은 동창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들며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었다.

“우리 과 동창들은 50년간 거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0여 명이 모이고 있어요. 오늘은 모두 참석하지 못해 아쉽네요”라며 이현숙(섬예 66) 동창은 함께 온 동창 5명을 기쁘게 소개했다. 가정대 동창회



한자리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50주년 동창들

이령회에서는 올해도 직접 마련한 코르사주를 준비해 50주년을 맞은 동창들에게 일일이 달아주는 모습이 정겨웠다. 졸업 50주년 동창인 차명희(법학 66) 동창은 “법대 13회 졸업생들은 13회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졸업하는 해로부터 50년 동안 매월 13일에 법대 동기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이에 차 동창의 동기인 이순옥(법학 66) 동창은 “30주년 때 법학과의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되었는데 벌써 50주년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올해 ‘올해의 이화인’이 된 후 배들이 참 짊어 보인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 50주년 동창인 김덕신(사회 66) 동창은 “모교가 점점 발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동창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한편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창들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정명애(화학 86) 동창은 “창립 130주년을 맞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것이 기쁘다”면서 “아침 6시부터 일정을 시작했는데도 고단한 줄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들은 많은 가족, 친지, 동창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웃음으로 화답하며 이날의 주인공으로서 품위를 잊지 않았다.



1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들 2 사진 오른쪽부터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옥 전 총장
3 장의순·최명숙 전 고문(오른쪽부터) 4 윤순희·김순영 고문(오른쪽부터) 5 조종남 고문

이화의 진선미 정신은 이화동창들에게서 나오는 것

오후 2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전 총장, 최경희 총장, 장의순·최명숙 전 고문과 윤순희·김순영·조종남 고문 및 1,5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2시 기념식은 송은미(유교 85) 총무의 사회와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로 막을 열었다. 김미순 선교부장은 “130년 이화의 생일을 감사히 맞으며, 섬김과 나눔, 봉사와 희생,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화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화의 동창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886년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으로 문을 연 모교는 현재 72개 학과, 13개 단과대, 15개 대학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성장했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고의 여자대학교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교에서 배운 ‘진선미 이화정신’을 각계각층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화동창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이화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3년 전 사재를 털어 ‘윤후정 통일포럼’을 만들어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윤후정 명예총장을 친취



1 김영주 총동창회장 2 올해의 이화인 대표 유미경 동창 3 50주년 동창 대표 표경희 동창 4 30주년 동창 대표 이미숙 동창
5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박정자 동창 6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김성미·안소영·송희경·진현미 동창(오른쪽부터)

적이고 선도적인 정신을 리드하는 ‘진’ 정신의 실천자로, 자기혁신의 ‘선’ 정신을 실천하는 동창으로는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된 천연 가능성 화장품 아이소이(ISOI) 대표 이진민 동창(국문 86)을 예로 들었다. “이 동창은 깨끗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원료가 비싸더라도 천연제품을 고집하는 화장품을 만들어 회사설립 7년 만에 20배의 성장을 해왔다”면서 이 동창을 포함한 ‘올해의 이화인’ 모두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선’ 정신의 실천자라고 하였다. 세 번째 ‘미’ 정신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창들에게서 나타나며, 올해 최초로 신설된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들이 아들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총동창회장은 다음 세기를 맞는 이화 안에서 21만 이화동창들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여 동창들로부터 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빛나는 이화인 5명 선정, 올해의 이화인 51명 추대

이 자리에서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빛나는 이화인’ 5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이화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탁월한 역량으로



1 김숙자 명예교수와 함께한 몸풀기 율동 2 최경희 모교 총장 3 음대 이음회의 특별 공연 4 체대 라인댄스 연구회 팀의 특별 공연
5 임희영 동창의 부채춤 축하 공연

사회에 공헌한 동창을 선정하여 귀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선정한 상이며, 올해는 5명의 동창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5인은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 박정자(커미부 2004 명예졸) 동창,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성미(영문 82) 동창,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안소영(약학 83) 동창, 제20대 국회의원 송희경(컴공 87) 동창, 아트미아 예술재단 대표 진현미(중문 92) 동창이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1명을 대표하여 유미경(경제 86)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재상봉 동창을 대표하여 표경희(사회 66) 동창과 이미숙(간호 86) 동창에게 기념품을 수여하였다. 이어 졸업 50주년 대표와 졸업 30주년 대표의 인사가 있었다.

50주년 대표 표경희 동창은 “1960년대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기에 당시 김옥길 총장님께서 온몸으로 경찰의 학생 연행을 막아주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김 총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우렁찬 목소리가 그립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전 이화인이 참여했던 경비정 모금운동을 언급하면서 “이화인들은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현명한 대처방안을 찾아왔다”며 앞으로 60주년, 70주년을 이화동창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1 남가주 지회 합창단 2 자연대 합창단 3 약대 합창단 4 법대 합창단

현재 켄터키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졸업 30주년 대표 이미숙 동창은 “모교 간호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대학이라는 자긍심이 크다”며 졸업 후에도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의미에서 이화 배지를 달고 다녔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이니만큼 앞으로 50주년에는 다시 30주년 후배들과 이화의 150주년을 축하하겠다고 말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모교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선 최경희 총장은 축하 인사말에서 “현재 이화는 재학생 2만 1,552명, 졸업생은 21만 명에 이르며 72개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1935년 신촌캠퍼스로 처음 이사왔을 때 이화에는 단 4개의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70개의 건물을 가진 캠퍼스가 되었고, 스크랜튼 역사 한 분이었던 선생님은 현재 약 2,160여 명의 교수진으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작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이화의 DNA, 이화인의 고유한 힘을 강조했던 최 총장은 올해 학군단(ROTO) 유치로 여성장교 양성을 시작했다고 말해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최 총장은 대강당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이화의 DNA를 가진 손녀, 조카를 만들고, 더 나아가 아웃집 여학생들을 이화에 오도록 애써달라며 이들을 “세계적인 여성 리더로 만들어 돌려드릴 자신이 있다”고 말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동창의날 올해의 이화인

3 4



1 이화 창립 1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식장을 가득 메운 이화 동창들 2 조형대 합창단 3 인문대 합창단 4 사범대 합창단

모두가 하나 된 합창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동창의 날 기념식의 꽃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은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각 과를 대표하여 추대된 51명의 ‘올해의 이화인’은 전통음악에 맞춰 입장하여 단상에 자리를 잡았고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임희영(무용 00) 동창이 우아한 부채춤을 선보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동창들은 자신의 과에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큰 환호와 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해마다 각 지회와 대학별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합창제가 허현미 회우부장의 사회와 곽은아(한음 85) 음악부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무대에 오른 팀은 1988년 창단되어 해마다 합창제에 참가하는 법대 합창단이었다. 1959년 졸업생이 최고령인 법대 합창단은 평균 연령 75세를 자랑하는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레이스가 달린 꽃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인생은 70부 터야>를 율동과 함께 불러 박수를 받았다. 뒤이어 등장한 작년 우승팀 사범대 합창단은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우승 이후 월 2회 연습을 함께하며 여러 행사에 참여해 왔다. 5월 30일(월)에 있었던 모교의 리마인드 채플에서도 친양 합창을 선보였던 사범대 합창단은 감청색 벨벳 드레스에 붉은 꽃 코르사주로 멋을 내고 장엄한 화음으로 <주기도문>을 선보였다.

세 번째 자연대 합창단은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윗도리에 색색의 커버 업을 두르고 등장한 자연대 합창단은 귀여운 율동을 가미하여 <이문세 가요 메들리>를 불러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네 번째는 조형대 합창단으로 검은 바지에 반짝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역동적인 구성과 율동으로 <깊은 밤을 날아서>란 곡을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섯 번째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특별히 고국을 찾은 남가주(LA) 지회 합창단 34명이 무대에 올랐다. 이 합창단은 12년 전 창단되어 매년 LA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고령 91세 동창(김진현, 체육 49)이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다. 짙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멋진 드럼 연주를 곁들인 88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섯 번째 인문대 합창단은 불문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맹렬한 연습을 해왔다. 검정 치마와 흰 블라우스, 오렌지 색 코르사주로 멋을 내고 <Une Petite Rose sur Arirang> 을 불어로 불러 큰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약대 합창단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한다. 평균 연령 73세인 이 팀은 청색 치마와 분홍 저고리의 한복을 갖춰 입고 장구와 팽과리의 리듬에 맞추어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불렀다.

싱그러운 5월의 기념일 한껏 즐겨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음대 아음회가 특별 출연하여 <Musica Dei>를 들려주었고, 체육대학 라인댄스 연구회 팀의 특별공연이 이어져 장내의 열기가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김숙자 명예교수는 단상에 앉아 있던 올해의 이화인들과 동창들 모두를 일으킨 뒤 다 함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풀기 유통을 주도하며 흥겹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별공연이 모두 끝난 뒤 합창제 심사위원장인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는 참가한 전 팀의 개성과 실력을 칭찬하면서 팀의 색깔에 걸맞는 가상의 상을 모든 팀에 선사하여 큰 웃음을 주었다. 올해 1등은 평균 연령 73세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흥겨운 반주로 진정 ‘나이가 숫자에 불과’ 함을 입증한 약대 합창단에게 돌아갔다. 2등은 멀리 LA에서 날아온 남가주(LA) 지회 합창단이, 3등은 사범대학 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동창들은 교가를 제창하며 아쉬운 자리를 마감했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인 아이소이 화장품을 안고 교정을 떠났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아령당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최경희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가족들과 삼삼오오 모여 총장 공관에서 다과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싱그러운 5월의 기념일을 한껏 즐겼다.

5월 31일(화) 이화창립 130주년 기념일은 꽃보다 아름다운 이화인의 미소가 빛나던 날이었다. 우리 모두 ‘빛나는 이화인’임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령당 앞마당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 최경희 총장과 기념촬영을 한 올해의 이화인

2016 올해의 이화인(1986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게재



이진민(국문)

유해 의심성분 0% 천연기능성 화장품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교장
아이소이(isoi) 대표



류경아(중문)



채림(불문)

RIMM GIOIELLI
(림 지오이엘리)
디자이너, 화가



김미선(독문)

서일중학교 교사



정화영(기독)

미 연합감리교 목사,
대학원 강사, 저자



이영재(철학)

큐레이터



강영선(사학)

도서출판 서해문집 상무이사 (주)메트라이프생명보험 상무



장은심(정외)

(주)메트라이프생명보험 상무



안지민(행정)

(주)퐁림철강 대표이사 (주)인포루미 대표



조혜민(문정)

(주)인포루미 대표



조희수(커미부)
SBS 시청자위원,
서초문화재단 이사



팽경인(사회)
(유)그룹세브코리아(테팔
한국법인) 대표이사



이윤상(사복)
(사)나눔인터내셔널 대표,
이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조진옥(심리)
(주)에듀베스트교육
대표이사



유미경(경제)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부장,
이화금융인회 회장



조의주(수학)
(주)푸르덴셜생명보험
CFO 겸 전무



김혜정(물리)
(주)스칸딕프라자 이사



정명애(화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 단장 베트올(주) 대표이사
및 여성과학기술총연합 이사



김정미(생명)
베트올(주) 대표이사



임미숙(컴공)
KT연구개발본부 수석연구원,
현 고객분석실 상무



김순담(피아노)
백석문화대 교수,
한국달크로즈학회 회장



양승주(관현)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정은(성악)
이음회 단원,
북미 교회성가대 지휘자 역임



강영화(작곡)
인제대 겸임교수 역임,
부산대 외래교수,
부산작곡가협회장



정혜경(종음)
CMAK음악인협회 회장,
대구반주연구회 회장



박성희(동양)
가정주부



천동옥(서양)
화가



손미란(조소)
영원운수 대표이사



배화숙(장미)
가정주부,
전 디자인 끌레(Cle) 대표



이재영(도예)
마이도터스웨딩&케이트블랑 대표



서영숙(체육)
(주)리스퀘어시스템즈 이사



이미영(무용)
국민대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승무 이수자



이숙원(교육)
삼성꿈장학재단 장학사업팀장



김윤미(유교)
시연유치원 원감



이현주(초교)
부천수주초등학교 부장교사



이소영(교공)
가정주부



김화수(특교)
대구대 언어치료학과 교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회장



김윤상(영교)
명덕외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자카르타국제한국학교(JIKS) 교사 역임



손승희(과교)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전신자(보교)
영락중학교 국어교사



권성희(법학)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임희소(경영)
가정주부



이지현(국제사무)
HSBC은행 기업자금관리부
본부장



최건무(의학)
울산대 의과대 강릉아산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정승은(간호)
한국교통대 간호학과 교수
간담췌외과 교수



신성주(약학)
강남구 약사회장,
암구정 프라자약국 대표약사



김채균(제약)
인하대 의대 교수



백종화(가관)
백종화심리상담센터 소장,
이대 대학원 아동학과 겸임교수



김지희(의직)
가정주부



김우경(식영)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가정주부



※ 본인 요청으로 사진 미제재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 리마인드 채플과 감사찬양제

이화를 지으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1888년부터 시작된 이화의 자랑, 채플

총동창회는 5월 30일(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리마인드 채플’과 감사찬양제를 올렸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2003년 5월부터 이화의 창립 정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매년 ‘이화 창립 감사찬양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모교 교목실(교목 양명수 실장)과 함께 ‘리마인드 채플’을 포함, 감사찬양제를 올리게 된 것이다. 1888년부터 시작된 채플은 학생, 교수, 직원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이어져 온 이화의

오랜 자랑거리이자 전통 중 하나이다.

리마인드 채플에는 많은 동창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선후배 간 공동체 의식을 다졌으며, 특히 ‘그 시절을 추억하며’라는 제목의 1960~80년대 흑백사진 영상 속에 교내 그리운 장소와 이화를 빛낸 스승, 학교 밖 낯익은 분식점 등이 등장할 때는 참석한 동창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김미순(기독 75)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기도를 통해 지난 130년간 이화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렸고, 이어 모교 건반악기 전공 Kupka Piotr 교수가

1 사진 오른쪽부터 김영주 총동창 회장, 최경희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김미순 선교부장 2 양명수 교목실장
3 Kupka Piotr 교수의 특별 연주



1



2



3

쇼팽의 <녹턴> 20번(Chopin Nocturne No. 20 in C# minor)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들려주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신약성서 시편 23장 1~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참석자들을 대표해 봉독했으며, 재학생으로 구성된 채플합창단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총동창회 선교부가 <거룩한 성>을 부르며 합동 찬양을 올려 선후배 간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양명수 교목실장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주제로 성경말씀을 전했다. 양 교목실장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풍요를 얻을 것”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도덕 성과 영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화합창단이 <The Ground>와 <We Go Together>를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참석자들은 봄 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감사찬양 선율, 대강당에 가득 울려퍼져

한편, 리마인드 채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총동창회 주최,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의 ‘이화 창립 130주년 감사찬양제’가 열렸다. 전 KBS 아나운서 김경란(철학 00) 동창이 진행한 감사찬양제는 대학 및 학과 별로 합창팀이 참여해 이화 창립 130주년을 축하하는 감사찬양을 올렸다. 조형예술대학 합창단(김옥광 동창 외 35명)의 <여호와 우리 주여>를 시작으로, 불어불문학과 애미 합창단(정혜선 동창 외 33명)의 <사랑 모두 이기리(L'amour Triomphe de Tout)>,

사범대학 합창단(노현숙 동창 외 40명)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화발레양상블(이은미, 지혜림 동창)의 <You Raise Me Up> 공연과 법과대학 합창단(유희숙 동창 외 35명)의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이어졌다. 특히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합창제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미국 남가주 지회 합창단(장경해 동창 외 40명)은 예정에 없던 무대에 올라 특별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 장내를 메운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현금을 한 후, 주기도문 송을 올리며 마무리했다. 현금은 이화 동창 선교사들을 돋는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글·이영희(시학 88, 홍보부장)



1



2



3

1 앞줄 왼쪽부터 김순영 고문,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2 남가주 지회 합창단의 특별 찬양

3 이화발레양상블의 축하 공연 <You Raise Me Up>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발레로 전하는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

5월 16일(월), 17일(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있었다. 모교와 총동창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1992년 창단 이후 발레의 대중화에 힘써온 이화발레앙상블(Ewha Ballet Ensemble, 안무 및 예술감독: 신은경 모교 무용과 교수)이 주관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야’는 매해 모교 대강당에서 공연을 올려 큰 찬사를 받아온 작품이다. 2003년 초연 이후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 케냐, 이스라엘 등에서 공연하며 문화나눔과 국제 교류를 통해 발레의 대중화와 한국 발레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초연 때부터 안무를 맡아온 신은경 교수는 “19세기 말 희망 없이 암울한 삶을 살던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이화를 세운 스크랜튼 선생님처럼, 발레로 표현하는 예수의 삶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공연 취지를 밝혔다.

헨델의 메시아와 낭만 발레의 절묘한 조화

80여 명의 모교 동창 및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발레리나들은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2막 14장으로 구성, 표현하여 큰 갈채를 받았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모차르트, 베를리오즈,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전면에 깔리고, 낭만 발레의 우아한 몸짓과 마임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3층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찬탄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2막 마지막에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는 큰 박수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공연을 즐겼다.

올해 공연은 신은경 교수와 학생들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정성어린 준비와 함께 무대 장치, 조명 등 모든 것들이 잘 뒷받침되어 공연의 완성도와 예술성이 특히 돋보였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총동창회 선교부 및 관계자들이 함께 중보로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다.

표 발매와 동시에 매진된 발레 공연에는 이화동창을 비롯, 모교 관계자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등 교계·선교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별히 총동창회 선교부는 국내에 있는 동창 선교사, 새터민, 공연 문화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청소년 등을 이 공연에 무료 초청하여 절망과 아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수익금 전액은 이화의 선교사를 위해 쓰인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총동창회 소식

각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4월 21일(목) 12시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 육문화관 806호)에서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 회장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송은미(유교 85)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및 2016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중 ‘빌레로 만나는 메시야’(5월 16일, 17일)는 공연 시간을 늘리고, 이화동창과 그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처음 제정 된 ‘빛나는 이화인’ 상은 ‘현직에서 빛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창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뒤 후보 추천을 부탁하였다.

한편 5월 30일(월) 대

강당에서 올리는 감사찬양제가 이번에는 ‘리마인드 채플’로 확대 진행된다고 알리며, “이화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채플에 참여해 내 신앙이 성숙했는지 되돌아보고, 모교에서의 빛나던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말했다.

이어 매년 봄에 치르던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9월 24일(토)로 날짜를 변경하였고, 대바자회 일정이 9월 6일(화)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모교 대외협력처 오진경 처장이 참석하여 ‘이화 창립 130주년 모금 캠페인’을 동창들에게 안내하였다. 오 처장은 “창립 130주년 발전기금, 창립 130주년 기숙사 개관기금과 함께 소액 모금 캠페인인 Ewha Wave와 이화미래설계장학생 후원 기금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참석한 동창들에게 부탁하였다.



각 대학(원) 및 과(학부) 회장, 지회장 초청 간담회



해외 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

해외 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

이화 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해외 지회 동창들이 5월 28일(토) 12시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 모여 총동창회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찬을 나누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해외 지회 동창들, 특히 합창제 참여를 위해 많은 인원이 단체로 참석한 남가주(LA) 지회를 비롯, 런던,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워싱턴DC, 텍사스, 하와이 지회 동창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총동창회에서는 리마인드 채플 일정과 해외 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 일정을 조정해서 해외에서 온 동창들이 모교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남가주(LA) 지회에서는 장경해(피아노 75) 회장을 포함한 40여 명이 모교를 방문했는데 이 중 33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장 동창은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많은 남가주 지회 동창들이 모교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남가주 합창단 운영위원장 박화자(간호 66) 동창은 “합창단 일원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합창제에 참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남가주 지회 동창 중 최고령 참석자 김진현(체육 49) 동창은 “체육과 1회 졸업생으로 현재 91세가 되었는데 남가주 지회 합창단이 창설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해 참석한 동창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에서도 곽정연(독문 76)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동창이 참석해 균형을 전했다. 곽 동창은 “북가주에서는 1956년 졸업 동창부터 1991년 졸업 동창까지 매달 첫 토요일 40여 명의 동창들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북가주 지회 일원으로 참석한 이현수(음악 56) 동창은 “현재 88세의 나이에 굴하지 않고 한인회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지회를 대표해 홀로 참석한 해외 동창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텍사스 지회 이쌍월(사복 65) 동창, 세계적인 피아제 이론가이자 28년간 옥스퍼드 대학 정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임원회에서 활동 중인 런던 지회 정미령(교육 66) 동창, 워싱턴DC 지회 이명지(영문 67) 동창, 뉴욕 지회 유덕향(약학 71) 동창, 하와이 지회장 이해련(영문 84)

동창 등이 지회 보고 및 근황을 소개할 때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가주(LA) 지회

동창 33명을 포함한 해외 지회 동창 총 50명, 총동창회 임원진 등 65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다.

정기임원회에서 윤순희 고문 연임 결정

4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4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이날 비공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절대적인 임원들의 지지로 윤순희(교육 65) 고문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순영(약학 62) 고문은 총동창회 100주년에 발간된 『이화여대 총동창회 100년사』에 담긴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이화적인 언어인 사랑, 희생, 봉사, 정의, 헌신, 섬김, 나눔의 정신으로 총동창회 일을 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5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기임원회에서는 5월 동창의 날 기념행사와 임원들 역할에 대한 각종 브리핑이 있었다.

6월 정기임원회는 6월 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중남미문화원에서 열렸다. 송은미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임원회는 김미순 선교부장의 기도, 회의록 낭독, 회계 보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지난 동창의 날 기념행사 평가로 이어졌다.

김미영(컴공 85) 공대 회장이 “안내하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사람 모두 자리를 찾느라 혼란스러워했는데 식당과 대강당 입구에 자리 공지 안내판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해원(식영 83) 사업부장은 “대강당에는 안내판이 있었으나 화환 등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30주년 동창석과 50주년 동창석에도 해당 동창들 일부가 제자리에 앉지 못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임산희(유교 81) 재정부장은 “임원들이 바깥에서 안내하느라 바빠서 상대적으로 식당이나 대강당

안에서의 안내가 미흡했다”고 말했으며, 송은미 총무는 “지난 임원회의 때도 미리 진행 관련 인쇄물을 돌리고 행사 당일 9시까지 모인 임원들에게는 맡은 역할을 한 번 더 숙지하도록 했으나 인원 부족으로 진행이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순희 고문은 “행사 때마다 늘 제기되던 문제”라며 행사 하루 전날 임원들이 모여 미리 맡은 역할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 총동창회가 주관한 리마인드 채플 및 감사찬양제에 대해서 사과대 김미령(커미부 69) 회장은 “감동적인 행사였으나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쉬웠다”고 총평했고, 김미순 선교부장은 대강당에서 다음 행사가 계획돼 있어 시간을 더 늘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9월 6일, 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9월 24일, 토) 날짜를 공지하고 대바자회는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각 대학 및 과에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하반기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추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중남미문화원에서 열린 6월 정기임원회

선교부 소식

필리핀 선교 후보생들 방문

5월 17일(화) 다락방의 총동창회 선교부 기도모임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하였다. International Teams Philippines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 후보생 46명이 모교로 캠퍼스 선교투어를 온 것이다. 선교로 시작한 이화가 100여 명의 동창 선교사를 배출한 것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현장을 탐방하였다.

김활란 선생이 막사이사 이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이화다락방전도협회가 지어져, 이 장소가 기도와 전도에 사용되고 있다 하자 참석자들은 그 친밀감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함께 친양과 예배를 드린 후

이화역사관을 찾았다.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의 시작과 130년 후의 현실은 기적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다. 팔복동산, ECC캠퍼스, 기도실 등을 방문한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해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을 관람하였다. 선교 후보생들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메시아 발레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화를 축복하였다.



필리핀 선교 후보생들과 함께한 선교부 기도모임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는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모교를 방문하여
그림도 그리고 교정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9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이화캠퍼스 내(추후 공지)
- 참가자격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3학년
(이화동창의 손주나 자녀, 이대 교직원 자녀)
- 참가비 3만 원(2인 점심 제공)
- 접수 2016년 8월 17일(수)부터
(유치부 100명, 초등부 100명 선착순 마감)
- 문의 총동창회 전화: 02-3277-3386~7
이메일: ewhaalum@ewha.ac.kr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총동창회에서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총동창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내 그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널리 세상에 알려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1월 말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역대 수상자

- 제1회** 박진숙(부산 매실보육원장, 심리 58) 동창
제2회 김행자(광주 로렌시아의 집 원장, 불문 64) 동창
제3회 방숙자(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정외 56) 동창
제4회 윤애리나(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간호 59) 동창
제5회 박양미(아프리카 선교사, 제약 82) 동창
제6회 강선희(무료 법률도우미, 법학 61) 동창
제7회 신경희(네팔 선교사, 특교 84) 동창
제8회 최재명(경산복지재단 이사장, 사복 66) 동창
제9회 김송자(대천애육원 원장, 불문 64) 동창
제10회 이인숙(덕포진교육박물관관장, 초교 70) 동창
제11회 오주엽(페루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센터’ 원장, 의학 81) 동창



시상 내용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수상 후보

사회복지, 의료, 법률, 종교,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나눔과 섬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동창(정회원, 준회원)

추천인 자격

각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구비 서류

후보자 추천서 1통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전술서 1통(본회 소정양식)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접수 기간

2016년 8월 22일(월)~26일(금)

***우편 접수는 8월 26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 이화정신으로 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총동창회에서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빛나는 이화인’상을 제정했다.

각 분야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및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하여 매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빛나는 이화인’상의 첫 수상자는 5명이다. 진선미의 이화정신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사회를 빛내고 있는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를 소개한다. (졸업연도 순서로 거재)

빛나는 이화인

“나를 키운 8할은 이화와 연극이에요”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

박정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04 명예졸업) 동창



무대 위에서는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 빨갛고 까만 여배우, 묵직한 울림이 있는 중성의 목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으로 한국 연극사를 관통해온 박정자 동창.

“살면서 이혼은 몇 번 생각했어도 연극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연극이 더 좋았으니까요.”

스물세 살 첫 무대에 선 이후 15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고, 그녀가 무대에서 보낸 시간만 어림잡아 1만 8,000여 일에 달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떠올리면 짐작도

못할 만큼 엄청난 시간이다.

박동창이 처음 연극을 본 것은 아홉 살 되던 1950년 4월, 극단 신협의 신인배우가 된 큰오빠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였다(큰오빠는 그 후 영화감독이 되었다). 서울시의회 자리에 있던 부민관에서 공연된 〈원술랑〉에는 당대 최고의 배우 김동원과 김선영이 출연했다. 두 번째 본 연극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의 작은 소극장에서 본 〈처용의 노래〉였다. 지금도 신기한 것은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아 강팍하던 그 시절, 극장을 날려버릴 것 같은 열광적인 박수소리와 분위기였다. 그때부터 연극에 관심은 있었지만, 진명

여중·고에는 연극부가 없어서 웅변, 합창, 무용을 배웠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일당이란 공연장이 있어서 철마다 전국 규모의 공연을 원 없이 볼 수 있다 는 것이었다.

4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은 연극배우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 커미부(신방)에 들어간 그녀는 1학년 채플 시간에 문리대 연극부에서 부원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아마추어 배우들 틈에 낀 생각은 없었다. 연극에 관해서는 베테랑이라 여기던 터라 그해 〈리스트라타〉 공연을 보며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듬해 그녀는 〈페드르〉의 왕비 역을 자신하며 오디션 장을 찾아갔다. 결과는 “예, 왕비님” 따위의 대사 열여섯 마디뿐인 시녀 역이었다. 그때 “겨우 시녀라니!” 하며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것이다. 왕비 역에 대한 한은 37년 뒤인 1999년 무대에서 풀었고, 페드르 연기는 자기뿐이라는 자신감까지 생겼다.

대학 3학년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에서는 정신 나간 80대 할머니 역을 맡았다. 역시나 단역이었다.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이 연극은 다음날 일간지에서 “대학 연극이 기성 연극을 위협한다”고 호평할 만큼 대성황이었다. 당시 문리대 연극부의 위상은 안팎으로 대단했다. 김정옥, 허규, 양동근 같은 해외 유학파 교수들에게 연출을 맡겼고, 명동예술극장, 드라마 센터 같은 대극장에 올려졌다. 이에는 연극을 좋아했던 이현구 학장, 나영균·김갑순·김세영 같은 교수들이 연극부에 힘을 실어준 이유도 있었다.

라디오 드라마가 전성기를 누리던 1963년 동아방

송에서 1기 공채 성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무작정 응모했다. 평생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기도 했다.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다. 직장이냐 학교냐, 양자택일 앞에서 조급한 마음에 방송국을 택했다.

“박정자라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줄게.”

자퇴서를 내던 날 당시 김갑순 학장의 말에 그녀는 울컥했다. 속으로 모교에서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리라 마음먹었다. 이태 뒤 김 학장의 부름을 받고 연극부 후배들과 함께 〈피의 결혼〉 무대에 섰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다.

40년이 지난 2004년, 모교 최초로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최연소 명예졸업생이었다. 그때 축하하러 와준 친구들은 “저하고 싶은 연극 다하고, 명예졸업장까지 받네” 하며 부러워했다.

그녀의 연기엔 뭔가가 있다

개성이 강한 목소리 때문에 방송에서도 할머니, 어머니 역할만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무렵 연극반 연출가로 만난 김정옥 씨가 손을 내밀었고 1966년 극단 ‘자유’ 창립 동인으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30대 젊은 시절에도 얼굴에 주름을 그리고 흰 가발을 쓴 채 노인 연기를 했고, 무당 같은 성격 강한 조연도 그녀의 차지였다. 그때도 화려한 주연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조연을 맡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다.

“인생이 그렇듯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노역과 조연은 훨씬 연기의 폭을 넓혀주었어요. 그때 주연이었던 배우들은 대부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활동하잖아요. 굽은 나무가 선산

을 지키듯이 말이에요.”

그녀가 제 나이에 맞는 주역을 연기한 것은 1986년 <위기의 여자>에서였다. 이 연극은 그녀에게도, 연극사에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중년 여성의 절망과 분노를 그렸는데 ‘내가 바로 위기의 여자야’라고 공감한 여성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모았다. 여성 연극의 분기점이 된 이 연극으로 그녀는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극평가 그룹상까지 휩쓸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손숙, 윤석화와 함께 여배우 3인방으로 불렸다. 라이벌 없는 인생은 시시할 뿐이라는 그녀에게 두 배우는 그녀를 늘 긴장시키고, 지금의 위치를 견주어볼 수 있는 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죽도록 사랑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어 <내 사랑 히로시마>(1993)와 <11월의 왈츠>(1994), <19 그리고 80>(2003)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평범한 중년여성과 20년 연하의 남자와의 밀애를 그린 <11월의 왈츠>, 80세 노인과 19세 청년의 로맨스 연극 <19 그리고 80>은 그렇게 탄생했다.

대표작을 만드는 데 나이는 필요없다

완벽한 연기란 없기에 모든 배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박정자 동창은 ‘머리가 아닌 동물적으로 하는 연기야말로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녀가 연습량이 많은 배우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인생은 희극이고 미스터리예요. 연습장과 무대에 있을 때만 행복한 사람인데도, 무대 설 때마다 긴장되고 실수할까 봐, 대사를 잊을까 봐 겁도 나는 걸 보면요.”

그렇게 엄살을 부리던 박 동창은 지난해 <키 큰 세여자>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사량이 많은 연극을 무사히 끝났을 때는 다시 강 하나를 건넜구나 하는 안도감과 74세의 나이에도 대표작을 만들 수 있구나 스스로 뿌듯했다.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19 그리고 80> <위기의 여자> <피의 결혼> <페드르>… 그녀의 이름을 알린 연극들이 참 많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들은 모두 훌러간 과거일 뿐, 중요한 건 대사를 외워야 하는 지금, 여기라고 말한다.

4년 전부터 그녀는 음악과 영상이 있는 낭독회를 해오고 있다. 사강의 동명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시작으로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삶을 그린 김별아의 소설을 65분으로 축약한 <영영 이별, 영 이별>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그녀는 이해랑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역대 연극상 수상자들과 함께 만드는 <햄릿>을 연습 중이다. 1인 다역이라 오페리어의 아버지 같은 남자 역도 맡았다. 공연, 연습이 없는 날이 더 힘들다는 그녀는 내년에도 어린이전용극장 개관 기념 공연인 어린이극과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공연할 예정이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8할이 연극이고 이화예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자동차와 휴대전화뿐이고, 가난이 숙명인 연극쟁이지만 그녀는 설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자신을 찾는 동료와 관객들이 있는 게 다행이고 행복하다. 배우는 직업이 아니라 업이라고 믿는 그녀는 진짜 배우이다.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카리스마는 열정과 자부심에서 나온다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김성미(영문 82) 동창

2015년 포브스코리아 경제계 파워우먼으로 선정되었던 김성미 동창에게는 늘 ‘은행원 같지 않은 은행원’ ‘영업퀸’ ‘리틀 권선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금융권 최초의 여성 CEO인 권선주 행장에 이어 기업은행 내 두 번째 여성 임원이자 현재 유일한 여성 임원이기도 한 김 동창. 권 행장이 부드럽고 따스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면 김성미 동창은 ‘열정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1982년 입사 이후 유니폼을 입던 시절을 빼고는 하루도 같은 옷을 입지 않았을 만큼 남다른 패션 감각의 김 동창은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동력을 ‘최고여야 한다는 자존심’을 꼽았다. 그런 자존심이 일 앞에서 때로는 여성다운 섬세함과 디테일로, 때로는 남성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만들었다.

은행원답지 않은, 가장 은행원다운

미술 동아리, 탈춤반 활동 등 강의실보다는 동아리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화가가 꿈일 만큼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김 동창이 은행원이 되었을 때 주위에서는 당연히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대학 4학년 때 김 동창은 우연히 언니를 따라 국민은행의 추계야유회에 갔다. 그날 인사한 언니의 상사

분이 주더라며 언니가 기업은행 입사지원서를 내민 건 얼마 후였다. 뜨악해하는 그녀와는 달리 부모님은 국책은행이고 일반 회사의 직원보다는 출퇴근이 정확한데다 갖가지 복지 지원도 있는 은행이라면 여자 직업으로서는 최고라며 그녀를 부추겼다. 그냥 시험만 보자 싶었는데 200명의 신입사원 중 6명뿐인 여행원으로 덜컥 합격했다.

‘어디서나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믿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었던 그녀에게 은행 조직은 생각과 많이 달랐다. 주요한 일은 늘 남자 차지였고, 여행원은 기껏 해야 보조 역할만 주어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여자여서 받아야 하는 부당한 편견에 맞서고, 기존의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은행원 김성미’가 아니라 ‘인간 김성미’의 존재를 보여주자고 마음먹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고객만이 해답이다

‘대면 영업의 귀재’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녀는 30년 넘는 행원 생활 동안 여러 기록들을 세웠다. 그 바탕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남과 똑같이 하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만년 영업실적 꼴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반월중앙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그랬다. 남자나 베테랑 영

업맨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는 주위의 만류가 오히려 그녀의 도전욕을 불러일으켰다.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 지점장들이 기존 점포들에 포진해 있었고, 가까운 반월공단 지점장은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 라승패는 별씨 판가름 난 거나 진배없었다. 새로운 점포가 기존 점포의 텃세를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터라 당연히 주위에서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에다 못미더워하는 눈치들이었다.

김성미 동창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정공법이었다. 사람이 모든 영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섰다. 지점장이라는 훈장을 내려놓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자는 게 핵심이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그것도 아니면 매일 고객들을 만났다. 처음의 차갑던 시선들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녀를 보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녀는 절박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진다는 교훈도 얻었다. 그렇게 물꼬가 트이자 고객들이 나서서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끌고 왔다. 그 덕에 부임 6개월 만에 주위의 우려를 딛고 전국 영업실적 1등 점포로 올라섰고, 지점장 발령 1년 만에 남중지역 본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공부하는 부행장, 고객에게 감동과 희망을

김성미 동창은 공부를 많이 하는 부행장으로도 유명하다. 개설 지점장 공모에 선발돼 잠실 트리지움 지점장으로 나가던 2006년부터 그녀의 공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새롭게 고객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단초가 되었

다. 점포 개설을 준비하며 건물 리모델링을 하던 중 인근의 건물주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인맥을 쌓고 모임에 나가는 등 은행 안보다는 밖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 후로도 그녀는 한양대 최고위 과정, 서울대 인문학 과정 등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니고 있다.

“제가 동료 지점장들 앞에서 ‘상품을 팔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사라, 그리고 스스로를 상품화하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기쁨도 커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 있던 분야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크기도 했고요.”

‘공부하는 부행장’라는 이름에 걸맞게 김성미 동창은 지난해 기흥연수원에서 PB VM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SOMEBODY TO LOVE… 부행장님과 함께하는 인문학 토크>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기업 영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 동창은 개인고객층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존 고객들과 신규 고객들을 유효 고객화해서 평생 기업은행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힘내라 대한민국’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고객들을 움직이는 건 이자율 같은 혜택보다는 감동이죠. 생애주기별로 체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에 따라 IBK와 함께하는 노래마당, 아빠와 함께

하는 병영체험, DMZ 방문, 대학 입시 설명회, 역사 체험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객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차례차례 실행했다. 그 결과 개인고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했고, 그 전 해보다 유효 고객이 60만 명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고객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그녀의 ‘대면 영업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김성미 동창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징병 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급되는 전자통장과 현금카드,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이 카드를 두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우리은행을 꺾고 국민은행과 함께 10년 동안 배타적인 영업권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청년들의 까다로운 니즈를 만족시킬 만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행

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예정이다. 그들이 바로 미래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미 동창은 종종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업은행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에 대해 그녀는 별다른 불만이 없다. 평생 은행 일만 했고, 기업은행이 없는 자신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도 하다.

“이대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받는 특별대우는 절대 사양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를 실험대에 올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미션을 수행해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게 만드는 성공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거든요.”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국내 신약 개발의 구원투수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안소영(약학 83) 동창



안소영 동창은 국내 제약사들의 구원투수로 불린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과 벌인 각종 특허권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국내 제네릭 시장의 개척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2006년 개업한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특

허법률사무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드물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이 특허사무소의 승소율은 90%가 넘는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안소영이 들어가면 이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안 동창이 제1회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가 된 것은 이렇듯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의 활로 개척을 통하여 신약 연구개발 진흥에 도움을 준 공로가 크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워커홀릭’으로 정평이 있을 정도로 바쁘지만 모교에 기여한 공로도 적지 않다. 2004년경에는 ‘이화특허인회’를 발족해 이화동창 변리사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말, 서울 서초대로에 있는 안소영 국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안소영 동창을 만났다. 8명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변리사를 포함,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다. 20여 명이 착석 할 수 있는 대회의실에는 안소영 동창이 받은 각종 감사패와 위촉패가 즐비했다. 그 중 3개는 모교로부터 받은 것이다. 총동창회 후원이사 위촉패, 약학대학 동창회 특별장학위원회 감사패, 올해의 이화인(2013) 상패가 그것. 특허청과 국내 제약업계로부터 받은 감사패도 많았다.

안 동창은 이번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 된 것에 대해 “1회 수상자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선배님이 많으신데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며 겸손해했다.

글로벌 공룡 제약사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

그가 써온 지난 10년간의 승소의 역사는 놀랍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 제약사 P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 국내에서만 한 해 2,000여 억 원 전 세계적으로 연간 매출액 15조 원 규모인 이 약을 둘러싸고 P사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10개사가 별인 특허

권 분쟁은 무려 5년간 진행된 싸움이었다. 대법원은 결국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중심에는 안소영 동창이 있었다.

이뿐 아니다. 삼진제약을 비롯한 국내 14개사가 프랑스 제약사 S사를 상대로 낸 세계적인 혈전 치료제 플라빅스의 특허소송, CJ가 미국 X사를 상대로 낸 세계적인 빈혈치료제 EPO의 특허소송, CJ가 일본 모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맥혈병 치료제 특허 소송,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프랑스 제약사 S사를 상대로 낸 항암제 특허권 소송 등 30여 개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냈다. 한국 신약 개발연구협동조합에서 받은 공로패는 그가 이러한 특허소송들을 통하여 국내 제약사의 제품 개발과 활로 개척은 물론 신약 연구개발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에 둑여 제품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 특허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가 늦거든요. 이 경우 특허 회피를 통한 제품개발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신약 특허 출원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도 많이 다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제약·바이오 분야 업무만 맡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른 분야도 맡는다. 초코찰떡파이 특허 소송이 그 예. 찹쌀떡에 초콜릿을 입힌 바로 그 초코찰떡파이 말이다. 이 파이는 1970년대 ‘찹쌀떡에 초콜릿을 입히면 과자부스리기도 생기지 않고, 부패 속도도 늦출 수 있겠다’는 한 평범한 떡장수의 아이디어에 의해 탄생했다. 주인공은 삼진식품 박충호 회장. 영세업자였던 그는 유통망을 갖춘 큰 제과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

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판매 속도가 불자 제과업체 측에서 박 회장 측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이 깜깜해진 박 회장은 안소영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는 손을 내밀었고, 안 대표는 그 손을 기꺼이 맞잡았다. 5년에 걸친 초코찰떡 파이 소송은 결국 두 사람이 이겼다.

안소영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개척해왔다. 안 동창은 특허청 최초의 박사 심사관이자 최초의 약학박사 출신 변리사이다. 특허청 박사 심사관으로 5년간 근무하던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특허법인 다래로 옮겼다. 그곳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은 그는 또 한 번 고액 연봉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한다. 자신의 이름을 달고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법원에서 판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전공지식을 활용하면서 문서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죠. 2006년에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를 개업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무모한 도전이라면서요. 당시만 해도 제약·바이오 관련 심판소송 사건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 10년 후에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죠.”

이화여대는 말 그대로 모교(母校)

이 바쁜 와중에 ‘이화특허인회’ 발족은 어떻게하게 됐을까. 그는 “구심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에 변리사가 되고 보니 후배들 간 구심

점이 없었죠. 모교 출신 변리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기댈 곳이 없어 보였어요. 2004년경 이화특허인회를 발족했습니다. 모교 출신 변리사들을 매년 한두 번씩 모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으며, 모교 변리사반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변리사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멘토링도 했죠. 당시 물리학과 조 월리엄 교수와 함께 이대 변시반(변리사 시험반)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애초 80명으로 시작한 이화특허인회는 점점 규모가 커져갔고,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후배한테 회장직을 물려줬다고 한다.

안 대표에게 이화여대는 어떤 곳이냐고 묻자, 그는 “말 그대로 모교”라고 답했다. 모교(母校). 존재의 뿌리이자 근원 같은 곳이며, 그곳에서 물려받은 DNA가 깊숙이 각인된 곳. 수식과 과장을 좋아하지 않는 그의 짧은 답변에서 진정성이 묻어났다. “그래서 특강이나 멘토링·후원 등의 요청이 오면 제 능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도우려 한다”며 빙그레 웃었다. 기억에 남는 스승으로는 지도교수였던 윤혜정 명예교수를 꼽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는 채플 시간을 꼽았다. 일요일 채플 때 간혹 김동길 연세대 교수가 진행했는데, 그 채플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남편과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두라”고 조언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부상으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안소영 동창은 “이 분야는 AI가 늦게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변리사는 기술과 국어가 복합된 분야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단순히 기술적인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능력은 행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고도화된 언어능력이 요구되지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변리사가 될 수 없어요. 약학과 후배들에게는 다양한 공부를 해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약학과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전쟁을 잘하려면 무기가 많아야 유리하지 않겠어요?”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IT 전문 국회의원, 정책 소통 넘버원을 꿈꾸며!

20대 국회의원

송희경(컴공 87) 동창



6월 13일(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희경(컴공 87) 동창은 소프트웨어가 산업 재편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대우정보시스템, KT 등 IT 업체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아온 송희경 동창은 이번 20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했다. 정보통신기술분야(ICT) 전문가인 송 동창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이 비례대표 1번을 지정했던 것이다. 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아끌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송 동창은 ‘IT 전문 국회의원 송희경의 정책 소통 넘버원’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송 동창은 이번 세미나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미래 먹을거리인 ICT 산업의 성패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년간 IT 업계를 주름잡은 워킹맘

송희경 동창은 대우정보시스템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여성 최초로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그 당시 회사 임원급 교육을 가면 시커먼 양복들 사이에서 송 동창 혼자만이 여자였다. 그러나 어떤 업무 지시가 떨어져 도 마다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영업 등 고되다는 부서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송 동창은 차츰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KT의 개발·영업 부문 최초로 여성 전무가 되었다. 송희경 동창에게는 ‘29년간 IT업계를 주름잡은 워킹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만큼 IT업계가 다른 업계보다 워킹맘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아이가 아픈데 병원

에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뒤늦게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이가 병원 침대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날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출근하라고 하셨지요. 저는 가족의 지원과 격려를 많이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지만 요즘 후배들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국가의 출산율에 대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IT 업계는 송 동창이 입성했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이공계 여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에 진출한 후배들이 생존하는 데 장벽은 많지만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성실함이 이공계에 유리하다고 송 동창은 생각한다. 다만 사회 진출 후, 연구직뿐 아니라 기술을 토대로 한 비즈니스·영업 등의 분야에서도 맹활약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제가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조직에서 테이블 사이드에 앉지 말고 중앙에 앉으라고 합니다. 백업을 하지 말고 일의 핵심 영역에 나서서 주도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해요. 또 일과 가정, 남성성과 여성성, 적극성과 수동성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며 장기적 관점에서 커리어를 관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고객으로 성심껏 모실 것

정보통신기술분야(ICT) 전문가이자 기업인으로 29년을 살아왔던 송 동창은 원래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오히려 정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많았다.

“처음 비례대표 제의를 받고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29년간 ICT 업계에서 비즈니스만 해온 나를 왜 부르는 걸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그런데 정치 문외한인 저를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한 이유는 단순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장 전문성을 살려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부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역량과 경험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송 동창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고객으로 성심껏 모신다는 자세로 IT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동창은 이번 국회 임기 4년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의 개혁 속도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의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현장 전문성이 입법 과정을 통해 실현할 일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얘기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유능하고 젊은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거라 봅니다. 그 인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그 산업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송 동창이 미래의 먹을거리 분야로서 개인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미지의 분야는 무엇일까?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알파고 쇼크에서 봤듯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삶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상 과학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면서 그녀는 미래 먹을거리와 IT 관련 정책은 정치 중립적인 영역임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은 초당적·초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회에 설득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자혜를 얻을 계획

이제 한 기업의 살림도 아닌, 한 국가의 미래 먹을 거리와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송 동창의 이화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산에서 올라와 하숙을 했어요. 그때 학교와 하숙집을 오가며 맡았던 최루탄 가스 냄새가 기억나요. 교정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 학교를 거닐며 사계절을 만끽했죠.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 불렀던 추억, 친구들과 대운동장에서 수다 떨었던 추억이 생생해요. 학과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수학, 통계학 등 정규 과목보다는 인공지능, 데이터 스트럭처 등의 신산업 관련 과목들을 좋아했어요.

재미있게 배웠고 성적도 좋았죠. 그래도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더 좋아했어요.”

송 동창은 기찻길 위 다리가 없어져서 많이 서운했고 고즈넉한 교정의 분위기가 그립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에 대해 묻자 송 동창은 “제가 올해는 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고, 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모교로부터 귀한상을 받아 영광이라고 했다. 의정 활동 중 “이화의 후배들과 자주 소통하고 또 사회에서 길을 터주신 선배들과도 많은 교류를 통해 자혜를 얻고 싶다”고 말하는 송 동창이 국회에서 열심히 소신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

글·전세영(시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소통과 신뢰로 중국 미술계에 우뚝 서다



아트미아 예술재단 대표

진현미(중문 92) 동창

요즘 전 세계 화랑가에서 중국 작가의 작품 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품 수요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화랑을 열거나 괜찮은 미술 작품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솜씨 좋은 작

가를 발굴하거나 작품 투자를 통해 재미를 본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런 중국 화랑가에서 예술 사업에 나선 한 한국인 여성의 주목받고 있다. 바로 올해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아트미아 예술재단 대표 진현미 동창이 그 주인공이다.

진 동창은 1994년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베이징

대학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8년 베이징 다산쯔(大山子) 차오창디(草場地) 예술구에 자신의 브랜드 ‘아트미아 갤러리’를 열었다. 문학을 전공한 진 동창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미술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다. 학위를 마친 후 3년간 베이징에 남아 강의를 하던 진 동창은 이화동창의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의 한 갤러리의 베이징 진출을 돕게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진 동창은 “2년 남짓 갤러리를 운영하다 예술의 시장가치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더 우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갤러리를 예술재단으로 전향했어요. 다양한 외부 플랫폼과 협업을 시도하면서 예술 공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아트미아 예술재단은 예술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 개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이다. 순수예술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이윤 일부를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목적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다.

세계적 작가와 작업 중인 중국 예술계 숨은 실력자

“쩡판즈, 샤알리, 아이웨이웨이, 송이거, 정짜이동, 장잉난, 그리고 한국화가 김진택 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 중국 예술가로 손꼽히는 쟽판즈(曾梵志)는 중국 현대미술가로 세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 작품 가격만 수억 원대를 호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 동창은 중국 현대 미술계의 떠오르는 별들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현재 진행형의 생존 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예술가로서의 그들의 삶을 관조할 수 있을 시간과 거리를 확보할 후대들의 몫인 거 같습니다. 제 역할은 작가

가 더 지속적으로, 더 집요하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긴 여정의 작은 동반자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아트미아 갤러리는 독일 출신 세계적 여성 작가 테 콜워츠 회고전을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중국 전역의 미술대 및 지방 공립 미술관을 순회하며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피카소 사진전을 여는 등 독특한 전시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쓰촨 등 미술관 등에서도 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 진 동창의 갤러리를 찾는 인물들은 장관급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온 사업가·은행가·예술가 등 다양하다. 덩샤오핑 전 주석의 장녀 덩린 여사도 진 동창이 기획한 전시회에 단골로 들르는 인사 중 하나이다.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미술 전공자도 아닌 문학도로서 난관도 많았다. 그때마다 예술이 주는 어떤 치유의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하는 진 동창.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견딘 후 비로소 겁을 먹는 둔감함이 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일할 땐 그 성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도의 예민함으로 자기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작가들과 작업하는 일에는 똑같은 예민함보다는 둔감함을 가장한 이해와 포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들과의 협업은 계약서보다는 소통과 신뢰의 비중이 더 큽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 동창이 말한 둔감함은 강하고 단단한 정신력을 말하는 것임을 느낀 순간이었다.

“다행히 중국은 한국 여성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 나아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입견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한 수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빛을 진 셈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당연히 있었을 무수한 장벽은 제가 종종 놓치거나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긍정적 둔감함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뒤늦게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도 그녀가 말하는 ‘둔감함’은 실제로는 부단한 노력과 회의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 박사논문 주제가 여성 문학입니다. 이 주제는 여성으로 사는 제 자신의 삶 자체에 부단한 회의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전히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직업으로서의 갤러리스트, 예술재단 운영을 위해 서는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자질이 있는지 묻자 진 동창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작가를 발굴하는 안목, 작가와의 소통 능력, 해석 능력, 창의력, 기획력, 디자인 및 홍보 능력, 시장 능력 등등 다양한 자질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자질을 잘 파악해서 그걸 십분 발휘하는 게 가장 차별화된 자신의 가치를 키워가는 방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스로 좋아하고 즐겨야 하는 예술 관련 직업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화인의 유대와 입지를 키우고파

인터뷰를 위해 연락했을 때 진 동창은 대학 동기 네 명과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했

다. 친구들에게 진 동창의 대학시절 모습이 어땠는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아동 비디오, 술 마시다가 수업 들어가기, 뾰글 파마머리에 보라색 입술, 한겨울에 흰 여름 치마 그냥 입고 신촌 누비기, 전혜린 책 부여잡고 심각하지만 행동과 사상이 늘 일치하지 않음, 의외로 자취방은 깔끔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머지는 심의에 걸릴 것 같아 생략하겠다고 하니 진 동창의 개성과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일면이다.

“모교 정문 앞에 꽂다발이며 연애편지 뭉치를 들고 하염없이 서 있던 초췌한 남학생, 등하교시 정문 밑을 지나는 행운의 기차 꼬리를 밟으러 뛰어가던 어여쁜 친구들, 하루 종일 다이어트 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친구들이 밤이면 여지없이 가숙사 커다란 식당 난롯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라면을 끓여먹던 풍경, 진실게임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밤새 온통 눈물바다가 된 대학 초년생의 첫 단합 엠티, 공처가 교수님의 주머니를 털어 용돈 몇 천 원으로 함께 소주 한 병을 사서 나눠 마시던 일 등 이화에서의 모든 것이 그리운 추억입니다.”

5월 31일(화) 대강당에서 있었던 ‘빛나는 이화인’ 상시상식에 참여한 그녀는 “대선배님들과 동창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즐거워하며, “선배와 동창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이화인의 유대와 입지를 확대하고 후배들의 사회 진출과 사회적 입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전세영(시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고(故) 정미경(의학 85) 동창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3월 21일(월)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 고 정미경 동창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상으로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의료봉사상이다. 18년 동안 3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왔던 고 정미경 동창은 2년 전 유방암에 걸려 투병 중 시상식 일주일 전에 운명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곽배희(법학 69) 동창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동창이 모교에서 선정한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하였다. 곽 동창은 국내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40년 이상 근무하며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며, 1998년의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장미승(정외 85) 동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

장미승 동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장 동창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두루 역임했다.



김애미(생명 88) 동창 맥킨지 시니어파트너 임명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맥킨지 앤 컴퍼니의 다섯 번째 한국인 시니어 파트너로 김애미 동창이 임명됐다. 시니어 파트너는 맥킨지에서 컨설턴트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이다. 김 동창은 2001년 맥킨지 미국 뉴저지 사무소로 입사해 16년째 맥킨지에 몸담고 있으며, 모교 대학원 통역학과 주임교수와 국제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위원회 당선된 이화동창들

김상희(제약 76), 부천 소사 / 인재근(사회 77) 도봉 갑 / 권미혁(법학 81), 비례대표 / 유승희(기독 82), 성북 갑
송희경(컴공 87), 비례대표 / 김정재(정외 88), 포항 북 / 서영교(정외 88) 동창, 중랑 갑 / 전희경(행정 99), 비례대표



김상희 동창



인재근 동창



권미혁 동창



유승희 동창



송희경 동창



김정재 동창



서영교 동창



전희경 동창

이화의 이곳저곳 / 창립 130년,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30년의 이화 역사가 한자리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경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첫눈에 들어오는 건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하 이대박물관)이다. 역사와 전통, 전시 수준, 누적 관람객 수 등 여러 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라움미술관과 어깨를 견줄 만한 이대박물관은 고고, 역사, 미술, 민속품, 미술품 등 다양한 유물 2만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달 약 4,000~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을 만큼 모교의 자랑이자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국내 유수의 박물관에 버금가는 이화의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이는 1930년 당시 이화보육학교 교수였던 에드나 밴 프리트(Edna M. Van Fleet)

교수였다. 5년 후인 1935년, 신촌 캠퍼스의 본관 109호에서 그동안 수집하고 기증받은 민속품을 전시한 것이 박물관의 시작이었고, 한국전쟁 때에도 부산의 임시교사인 필승각을 빌어 전시 활동을 계속했다. 유엔군과 외교사절단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아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함이었다.

김활란 선생의 개인 소장품 수백 점을 기증받은 1950년대와, 단독 건물을 짓고 유물 정리를 시작한 1960년대를 거쳐 1972년부터 소장품 특별전과 전시도록을 발간함으로써 본격적인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 지금의 자리에 창립 100주년 기념박물관을 신축 개관하면서 체계적인 유물 관리와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1997년에는 야외 조각공원, 1999년에는 담인복식미술관을 조성했고, 2005년 전시 공간 확대를 위한 증축 재개관, 이듬해에는 현대미술전시관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전시 기획이 가능해졌다.

매 전시 때마다 새로운 전시 형식을 도입하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대박물관에는 현재 관장 장남원(중문 85) 교수를 비롯해 전시 기획, 유물 관리, 학술 연구 및 자료 발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디자인,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원 10여 명과 조교, 인턴, 도슨트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시품, 공간, 관람객 간의 교감과 소통이 최우선

이대박물관은 3개의 전시관과 담인복식미술관, 현대미술전시관, 옹기갤러리와 야외 조각공원, 전문도서관과 도편자료실, 그리고 대학박물관 최초로 아트숍을 갖춘 규모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80년 동안 이대박물관은 백화점식 진열과 보여주기식 전시가 아니라 전시품, 공간, 관람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상설전시관에서는 국보 제107호인 백자 철화포도문 항아리 이외에도 남한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 유물인 평양성 석각자편과 기사계첩,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등 보물 11점과 중요 민속자료 3점을 포함해 회화, 도자, 공예, 민속품과 문헌자료 등의 소장유물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가 열리는 기획전시관은 대학 박물관 최초로 개최한 1972년 소장품 특별전 아래 꾸준히 성장해온 박물관의 학예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소장 유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 미술을 아우르며 학술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참신한 기획의 전시를 선보여 왔다. 전시기간 중에는 강연회, 심포지엄,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증전시관은 지역사회 인사들과 이화 가족들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회교육 자원으로 기증한 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하여 기증자의 뜻과 정성을 기리고 있다.

담인복식미술관은 모교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 장숙환(사학 64) 교수가 어머니 담인(詹人) 장부덕 님의 유품을 비롯해 약 40년간 수집한 유물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전시 공간이다. 조선시대 남녀의 장신구, 의복, 수예품, 목공 소품, 가구 등의 유물은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1층과 2층 야외 공간에 마련된 옹기갤러리는 박물관이 오랜 기간 수집해 온 옹기를 상설 전시하며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옹기를 통해 옹기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 3만여 권의 전문서적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상시 진행되는 교육실, 전국의 중요 도요지 출토 도편을 정리 보관하고 있는 도편자료실도 박물관의 주요 시설이다.

지난해 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열린 ‘조선백자’ 전은 600여 점의 전시 물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백자전이라는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이 전시로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한 ‘2015 올해의 박물관·미술관 시상’에서 기획전시 부문 ‘올해의 우수활동상’을 수상하였으며, 특별전 도록 『조선백자』는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가 주최한 ‘서울 뮤지엄 퍼블리케이션 어워드’에서 ‘한국박물관협회장상’을 수상했을 만큼 대외적으로 전시적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내 최초 여성 발굴단 활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대박물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학술 발굴 활동. 1963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발굴단을 구성하고 경북 안동 조탑동 고분을 발굴한 이래 경주 황오동 고분, 남한 최초의 신라 벽화고분인 경북 순흥 어숙술간묘, 양평 사지포리 지석묘의 동검 발굴 등을 수행했다. 1985년 경기도 광주군 번천리에서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 관요 백자가마터를 발굴, 조사한 이후 전국의 청자, 백자, 도기 가마의 발굴과 조사 활동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도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입증해 왔다.

또 박물관은 어린이, 성인, 이화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화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전시연계교육과, 실제적인 업무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과 도슨트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아카데미’는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생생문화재’에도 선정되어 초등학생 대상의 문화교육을 진행 중이다.



아펜젤러 선생의 책상과 이화학당에서 사용되었던 태극기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세 가지 특별전

모교 창립 130년을 맞아 이대박물관에서는 ‘유물로 보는 130년의 기억’과 ‘목木·공工’, ‘신 Shoes’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기증전시관에서 열리는 ‘유물로 보는 130년의 기억’ 전에서는 1886년 창립 후 130년 동안의 모교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이화학당에서 사용되었던 태극기와 성경책 및 6대 교장이었던 앤리스 R. 아펜젤러 선생의 책상, 1956년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꽃무늬 한복과 메이퀸 왕관, 사진집



이화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전시 ‘이화인이 함께 만드는 이화 130년’

단체로 입었던 배꽃 무늬 한복, 1966년 창립 80주년 기념 메이퀸 왕관과 역대 메이퀸 사진집 등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및 이화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전시로 ‘이화인이 함께 만드는 이화 130년’을 열고 있어요. 올 12월 20일(화)까지 이화 교정의 옛 모습과 축제, 수업 등 이화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시면 융합콘텐츠학과 여운승 교수님과 협업하여 영상물로 제작하고 전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이화 동창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학예연구원 송인희(영교 03) 동창의 말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이메일(museum@ewha.ac.kr) 또는 전화(02-3277-4696)로 연락하거나 관련 홈페이지(<http://130withmuseum.ewha.ac.kr>)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된다.

기획전시관의 ‘목木·공工’ 전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시대와 근현대기의 목가구와 목공 소품들을 1996년에 열린 목가구 전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쓰임과 조형에 따라 ‘탁자와 서안’, ‘장과 농’, ‘궤와 함’, ‘소반’, ‘목공 소품’의 5개 주제로 분류해 전시하며, 실제 유물과 함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나무 본연의 물성과 조형미, 역사성을 살펴보고 목재와 제작 도구 및 나전과 화각의 장식 과정도 볼 수 있다.

담인복식미술관의 ‘신 Shoes’ 전은 조선시대와 근대기에 걸친 신발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상류계층에서 신었던 태사혜와 당혜, 운혜를 비롯해 목화와 제혜 등의 관복 및 예복용 신발과 낮 익은 나막신, 짚신 이외에도 근대기의 고무신과 가죽신에 이르기까지 신발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12월 31일(토)까지 열린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7시까지 관람 시간을 연장한다.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의 경우 5일 전 사전 예약을 하면 한국어나 영어로 전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02-3277-3675)와 홈페이지(<http://museum.ewha.ac.kr>)로 하면 된다.



‘목木·공工’ 전에 전시 중인 목가구들



신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담인복식미술관의 ‘신 Shoes’ 전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두 분은 이대 심리학과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

이번 호 ‘나의 스승 나의 제자’는 좀 특별하다. 그간에는 단 한 명의 스승이 주인공이었지만, 이번에는 두 명의 명예교수가 나란히 등장한다. 모교 심리학과에서 30년 이상 봉직한 김재은·김태련 명예교수. 애초에는 김재은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섭외했는데, 대담 자리에는 김태련 교수도 와 있었다. 김재은 교수의 배려였다. 김재은 교수는 “김태련 교수는 나의 첫 제자이자 50년간 심리학계의 동료로 지내왔어요. 이번 호는 두 명의 교수가 등장하는 특집으로 했으면 해요. 나만 부각하지 말고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다뤄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김재은 교수와 김태련 교수의 50여 년 인연

이날 함께한 네 명의 제자들은 김재은 교수의 제자이자 김태련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1959년과 1964년에 각각 정교수가 된 김재은 교수와 김태련 교수는 무려 30여 년 간 캠퍼스에서 동료 교수로 동고동락하면서 모교 심리학과의 발전을 이끌었다. 김재은 교수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심리학과에서 70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는데, 당시 의대 다음으로 많은 인원일 것”이라며 “말하기 쑥스럽지만 심리학과를 학구적인 분위기로 만드는데에는 나와 김태련 교수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김재은 교수는 1931년생, 김태련 교수는 1937년 생이다. 각각 86세, 80세. 나이를 굳이 거론하는 것

은 두 교수의 믿기지 않는 열정 때문이다. 정년퇴직 이후 두 사람은 퇴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활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저 포함 140여 권의 책을 집필한 김재은 교수는 2년 전, 전공 관련 서적 네 권을 동시에 냈고, 최근 1,000페이지가 넘는 인물 일화집을 쓰고 있다. 왕과장군, 예술가와 학자 등을 아우르는 책이다. 그는 또 이화여대의 옛 사진을 구해 펜화로 복원해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 1930년대의 영학관(英學館), 음대와 진선미관, 체대의 옛 건물, 1950년 전쟁 중 부산으로 피신한 모교 간이캠퍼스 등을 복원해내는 작업이다.

김태련 교수는 모교 심리학과를 발달장애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한 주역이다. 김 교수는 한국 발달심리학계의 대모이자 산증인 같은 존재로 꼽힌다. 한국에 발달심리에 대한 인식과 치료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한 1970년대, 모교에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아동센터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후 쉼 없이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퇴직 후 아이코리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제 베스트버디(Best Buddies)를 한국에 유치해 200명이 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돈독한 우정을 맺게 했고, 이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두 교수와 계명의·이진용·홍순정·한상운 네 명의

■ 김재은 명예교수

1931년생. 서울대 교육학과, 동대학원 석사 및 이화여대 교육심리학 문학박사. 1959년부터 1996년까지 37년간 모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아동연구회 회장, 교육심리연구회 회장, 한국가족학회 회장 역임. 『아이들에게 예술을』, 『창의력, 문화력, 인격력 세 가지 힘을 키워라』,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등 공저 포함 14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제7회 천원교육학술상 등 수상.



■ 김태련 명예교수

1937년생. 1960년 모교 심리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성균관대 대학원 심리학 문학박사. 1964년부터 2002년까지 모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 원장, 이대부속중고등학교장 등을 역임.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한국여성심리학회 회장, 한국자폐학회장 역임, 현 아이코리아 회장. 『일반 심리학』, 『발달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여성심리학』 등 저서와 연구논문을 남김.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 대상 등 수상.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계명의(62) 서울 공릉동 이화유치원 원장 역임, 이화인지연구회 활동 중

이진용(68) YWCA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심리학과 동창회장 역임

홍순정(70) 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역임, 현 인성교육문화연구소장 겸 동승필오케스트라 대표, 심리학과 동창회장 역임

한상은(84) 현 심리학과 동창회장

제자를 지난 5월 중순 모교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만났다. 계명의 동창은 공릉동에 이화유치원을 열어 크게 발전시켰다. 이진용·홍순정 동창은 심리학과 동창회장을 지냈고, 한상은 동창은 현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두 교수와 네 제자들은 수시로 소식을 접하고 만나왔기에 유별나게 반기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이 대담이 있기 일주일 전에도 만나서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5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들은 서로에 대한 정이 깊었다. 교수들은 제자의 탁월한 능력이 보이면 적극 이끌어주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 위로해주었다. 제자들은 그런 교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주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다. 두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자 자랑을 숨 가쁘게 했다.

김재은 김태련 선생은 내 첫 제자인데 유난히 눈에 띠었어요. 매 시험마다 수석이었지. 아주 영특했어요. 대학원 오겠다는 얘길 듣고 내 수제자로 점찍어 뒀어요. 이후 60년 가까이 학술활동도 함께하면서 같이 늙고 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지. 이진용 선생은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 모으고 설득력도 있어요. 리더십이 남다르지. 홍순정 선생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바이올린, 플루트 연주도 잘하고 민화도 잘 그리지. 그러더니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 계명의 선생은 착실하고 정도를 가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찾아왔길래 유치원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결국 아주 잘됐어. 한상은 선생은 모나리자 같은 이미지로 기억해요. 인물도 출

중하고 착실한 학생이었지.

김태련 제가 대학 4학년 때 선생님이 교수로 부임하셨어요. 29세의 젊은 교수이셨죠. 당시 서울 대 심리학과 동기생 세 분이 동시에 이대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하셨는데, 김재은 교수님이 특히 학구적이셨어요. 심리연구, 심리측정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측정통계를 했잖아요. 김재은 교수님 영향이 커어요. 교수로 부임한 후 가르친 첫 과목도 <심리통계>였죠.

김재은 교수, 펜화 전시회 기금 학교에 기부

홍순정 제가 공부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데에는 두 분의 영향이 커요. 김재은 교수님 덕분에 제 학부 졸업논문이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됐죠. 《한국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과정》이라는 논문인데, 졸업을 위해 낸 논문이 중앙일보에 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계기로 공부에 뜻을 두게 됐죠.

김재은 학부 논문으로는 아까운 논문이라 중앙일보에 투고를 했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홍선생이랑 책도 같이 썼잖아. 창의성 교육, 감성교육, 인지발달 관련 책으로 기억해요.

홍순정 맞아요, 선생님(웃음). 김태련 교수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학문적으로도 도움을 주셨지만 삶의 큰 위로를 주셨지요. 제가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해서 “같이 밥먹자”고 하신 분이 바로 김태련 교수님이었어요. 제 아이들은 김태련 교수님을 아직도 ‘엄마 선생님’으로 기억해요.

계명의 저 역시 김재은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졸업 10년 후에 유치원을 개원하게 된 것도 김재은 교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였죠. 교수님이 제 남편을 설득해 늦깎이 대학원생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상은 동창회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새삼 깨달아요. 학생 때에는 뭣 모르고 다니다가 최근 동창회 일을 하면서 다시 뵙게 됐는데, 그땐 몰랐던 면면이 많이 보여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친정 부모님처럼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김재은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제자 복이 많아요. 사제기간에는 서로 투자를 해야 해. 시간 투자, 마음 투자. 내가 퇴직 후 인사동에 작은 사무실을 냈는데, 서울대 교수 출신의 친구가 많이 놀러오거든. 그 친구가 내 제자들이 사주는 점심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나는 그 친구 제자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웃음). “여자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라며 놀리던 친구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지. 오늘도 한 제자가 찾아와서 밥 사주고 갔고, 엊그제도 두 명이 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20만원 주고 갔어요. 허허.

홍순정 김재은 교수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플루트 연주, 색소폰 연주, 작곡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소질이 있어서 펜화 전시회도 하셨어요. 그 기금은 학교를 위해 기부하셨죠. 한 번은 동창회 측에, 한 번은 심리학과 장학기금으로 쾌척하셨어요.

김태련 김재은 교수님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에너지가 대단한 분이세요. 10년 전쯤엔 위암에 걸리셔서 위의 70%를 절제하셨는데, 잘 이겨내셨죠. 그 와중에도 책 짍풀, 펜화 작업과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꺼이지 않는 호기심과 창의력이 암 극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 단 한 명의



왼쪽부터 계명의·이진용 동창, 김태련·김재은 명예교수, 흥순정·한상은 동창

천재를 꼽으라면 김재은 교수님을 꼽겠어요.

한국 발달장애학계의 대모 김태련 교수

이진용 김재은 교수님은 오뚝이시죠.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제자들한테 연락해 선생님께 힘을 북돋워 드리는 등 그 중간 역할을 김태련 교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김태련 교수님은 선배이자 큰언니 같은 분이세요. 서울대에서 오신 세 분의 교수를 포용하면서 화합으로 이끄는 등 우리 과의 화합에 큰 역할을 하셨죠.

김재은 맞아요. 우리 셋이 40년간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 없이 잘 지내고, 끝까지 남아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김태련 선생의 공로가 커요. 특별히 심리학과는 교수들 간, 교수와 재학생 간 그리고 교수와 동창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흥순정 김태련 교수님은 교수법에서도 남다르셨어요. 1학년 때부터 4년간 발달심리, 이상심리, 청년심리를 배웠는데,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파고드시죠. 너는 학생, 나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학문을 닦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언니 같았지요(웃음). 취업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증까지 신경

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상은 맞아요. 풍기는 카리스마가 대단하신데, 안으로는 따뜻하셨어요. 엄청 세심하시고, 그때도 보라색을 좋아하셨어요. 앞머리 없는 칠랑거리는 단발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고, 이화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묶은 책 제목도 『영원한 단발머리』였죠.

김태련 그 시절을 회고해보니 새삼 그립네요. 그런데 이화동창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교수와 제자 간 끈끈한 인연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졸업하는 선배들과 학과 교수들이 모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재은 하버드 대학 출신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학이 됐습니까?” 물었더니 “졸업생들이 배운 것을 학교에 두고 나와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졸업생들의 역할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명문이 탄생한 것인지. 그게 동창들의 역할이에요. 학교 졸업 후에도 모교와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선배가 많은 학교가 바로 명문대입니다.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마을에 가면 숙제 검사를 합니다. 번역팀이 마을 점검을 잘했나 검사하는 것이지요. 지난 1월 방문 때는 숙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점검을 마친 수정본 3권을 저희에게 내놓았습니다(열왕기 상하/290절, 대하~욥기/113절, 전도서 후반~애가/218절). 이전부터 점검 하다 중단되다 했던 것들을 이제야 마무리하게 된 것 이지요. 덕분에 컴퓨터에 입력하고 다음 점검을 준비 하는 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이제는 저희가 마을에 없는 동안에도 번역팀 스스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듯해서 감사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의 일부분 (총 333절)을 이번에 번역자들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에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갔습니다. 기증 받은 TV 스크린을 활용해 점검하면서 그때 그 때 수정한 부분을 번역팀과 함께 볼 수 있으리라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발전기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비를 예상하지 못했지요. 우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4월 내내 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폭우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니 발전기 사용이 어려웠고 결국 작은 노트북 컴퓨터를 여러 명이 같이 보면서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점검 때는 이전에 했던 대로 점검할 본문을 책자로 만들어 마을에 가져 오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침 6시에 주일학교에 오라고 광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일 듯 싶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망고 나무에 매달려 종을 치면서 외쳐 야 하니 제일 바빠 보입니다. 7시 30분쯤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둘 예배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아이들도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작은 오전 8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후 분반 공부, 나 이별로 반이 나뉘는데 교사가 오지 못한 반이 있는 듯 합니다. 보통은 10명 정도가 한 반으로 구성되는데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망고 나무 밑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 분반 공부에 참여해 보았는데 딱 봐도 성경을 가르칠 교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제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곳 시베시베 초등학교에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카나누와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설교할 때나 분반 공부 때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후 준비한 성경활용 자료들을 교사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특히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공부 교재는 16세 이상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라며 고마워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1. 계속해서 마을 점검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바이탈에서 초벌 번역했던 구약 말씀 중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일부분이 아직 점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 마을 점검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7월 25일(월)부터 알로타우 센터에서 5주간 진행되는 번역자 훈련 프로그램 TTCI(Translator's Training Course 1)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희 카니누와 종족에서는 4명의 번역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속테스, 잭, 레비, 실베스터).
3. 미녀성경 봉헌식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카니누와 종족으로서는 카니누와 언어로 번역된 미녀성경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첫 책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 자체 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기쁨이 있는 봉헌식이 되도록 준비과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후 교사들의 요청으로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아울러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지에 대해 워크숍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교사들이 필요를 느끼고 부탁한 것이어서 그런지 참석한 모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율동까지 만들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과 좀더 기까워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카니누와 사람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책자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글짓기 수업(Writer's Workshop)을 했습니다. 3일 동안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교실에 모여 글짓기를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도, 아이 엄마도 카니누와 언어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처음이라 철자법도 틀리고 쉽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는 교실 안에서 쓰다가 밖으로 나와 글을 써 봅니다. 어찌 됐든 모두들 열심히 글을 쓰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글짓기 수업을 하면서 카니누와 언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암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언어발견(Language Discovery) 시간을 통해 카니누와 말과 글이 영어나

한국어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글짓기 수업을 마치며 참가자들이 ‘나의 어렸을 때’라는 주제로 쓴 글들을 제출했는데, 번역팀의 속테스와 실베스터가 제출된 글들을 점검하면서 글쓴이들이 잘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글을 잘 쓴 이들은 상도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쓴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바라건대 이들이 계속 카니누와 언어로 글짓기를 해서 다음 방문 때 저희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동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번역자인 속테스의 숙부이자, 번역위원장인 존 로벳의 장인께서(86세)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장례 절차에 동참하면서 아들의 문화를 좀 더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고인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던 분으로 기억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서울처럼 여러 면에서 잘나고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지켰던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거의 다’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조선향(생명 95) 동창

모교 소식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식 개최

모교는 5월 31일(화) 오전 10시 모교 대강당에서 3,000여 명의 축하 속에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경희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의 창립 정신과 세상의 first를 주도한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되새기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넣은 ‘기부’의 기적과 이화의 발전상을 전했다. 또한 국제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 통일을 대비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이화 4.0’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컨소시엄(Asian Premier University Club) 구축, EGPP 확대(EGPP Plus),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펀드(Ewha Excellence Fund) 조성 등을 밝히며 이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의숙 전 이사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옥 전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영국,

벨기에 등 14개국 주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이화와 관련된 주요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이화의 130년 발전상과 명사·동창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130주년 기념 축하영상’이 특별 상영됐으며, 최재옥 교사(이화·금란중학교), 정영해 교수(의학), 맥승학 직원(시설팀)이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119명을 대표해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수상자 곽배희(법학 6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두어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된 동창에게 모교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곽배희 소장은 국내 최초의 민간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40년 이상 근무하며 여성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률구조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전개해 우리 사회의 통합



과 균형,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제12회 이화학술상’ 수상자 윤주영 화학·나노과학전공 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성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이화의 학문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모교 교수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수여되는 상이다. 윤주영 교수는 형광화학센서 및 분자인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2015~2016년 톰슨로이터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바 있는 등 화학 분야에서 이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총장 초청 오찬이 공관에서 열렸다. 참석 귀빈과 이화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오찬에서는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자 곽배희 소장 및 ‘이화학술상’ 수상자 윤주영 교수의 수상 소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한 총동창회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다.

아버지 이화사랑 프로그램 ‘Ewha Father’s Day: 아빠와 함께하는 안산(鞍山) 자락길 걷기’ 행사 개최

모교 학생처(처장 석인선)는 4월 30일(토) 오전 9시 봄꽃이 만연한 이화 캠퍼스에서 아버지 이화사랑 프로그램 ‘Ewha Father’s Day: 아빠와 함께하는 안산(鞍山) 자락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개최되어 2회를 맞이하는 아버지 이화사랑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안산 자락길 걷기’ 행사에 올해도 재학생과 아버지 90팀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두 번째로 행사에 참여한 팀 뿐만 아니라 울산, 청주, 강원도 등 국내 곳곳은 물론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태국에서 직접 온 아버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희 총장과 박영일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모교 주요 보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짹 체조’를 시작으로 봄날의 정경을 만끽하며 안산 자락길 4km 가량을 걸었다. 중간 휴식처인 숲속 무대에서는 재학생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간단한 게임과 참가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다슬 재학생(사회과교육과 14학번)은 “작년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최정문 재학생(인문과학부 16학번) 아버지는 “딸이 ‘이부심(이화여대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학교 사랑을 많이 한다”며 “딸과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참여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 신입생은 “아버지가 네팔 지진 등 구조활동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끊임없는 사연을 전해주었다. 고정현 재학생(사회과학부 16학번) 아버지는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에서 ‘EWHA’라는 영문명을 보고 East, West, High, Area를 떠올렸다”며 “전세계적으로 이화의 명성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



채로운 ‘학부모 이화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된 ‘Welcome to the Ewha Family’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6 학부모 이화사랑 프

로그램’이다. 모교는 이번 ‘Ewha Father’s Day’ 행사뿐만 아니라 음악회, 전시회, 특강 등 다양한 행사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부모 이화 사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교, ‘CORE 사업’ 및 ‘PRIME 사업’ 선정

모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3월 17일(목) 발표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과 5월 3일(화) 발표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CORE 사업’은 대학 인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초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총 6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사업에는 총 46개교가 지원하였고, 1단계(서면평가) 및 2단계(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모교를 비롯한 수도권 7개교, 비수도권 9개교 등 총 16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자체개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 등의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별로 특화된 인문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모교는 이번 사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LUCETE 인문대학’이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 심화 모델을 중점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문학도를 양성할 계획이다. LUCETE는 ‘밝게 빛나라’는 뜻의 라틴어로 밝게 빛나는 인문대학과 인문학도를 의미한다.

한편, ‘PRIME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

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조정 등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함께 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2016년 총 2,012억 원의 예산규모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사업에는 총 75개교(대학 27개교, 소형 48개교)가 지원하여 1단계(서면 평가) 및 2단계(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모교를 비롯한 수도권 5개교, 비수도권 16개교 총 21개 대학이 선정됐다.

모교는 이번 사업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바이오헬스 미래신산업분야의 글로벌 여성공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미래사회공학을 중심 육성할 예정이다. ‘VISION 2020’ 등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학사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모교는 2015년 뇌·인지과학전공과 화학신소재공학부, 2016년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하는 등 사회수요에 적합한 학사구조를 꾸준히 실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선정은 모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쾌거이다.

모교는 경력개발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진로지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ELTEC공과대학에는 산학부학장을 신설하여 PRIME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외 인턴십 등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또한 ELTEC온라

인커리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 취업, 인턴십, 전공탐색, 전공심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

주기적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3회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모교는 5월 19일(목) 오후 2시 ECC 이삼봉홀에서 ‘통일과 여성Ⅱ: 기억, 소통, 미래’를 주제로 ‘제3회 윤후정 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담론의 장을 펼쳤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 여성 현법학자이자 제10대 모교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명예총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라는 신념에 따라 2013년부터 큰 금액을 기부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통일 논의의 열린 장이다.

김석향 통일학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최경희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여대는 지난 130년간 어렵고 힘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윤후정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윤후정 통일포럼을 진정한 통일 논의의 장이자 통일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무대로 만들어 기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하에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나리오 △통일의 조건 △통일과 여성에 관한 화두를 제기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김선욱 전 총장의 사회로 기조 발제자 박세일 교수를 비롯하여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외교부 장관,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장, 현인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 통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통일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 2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담론을 펼쳤다.

윤후정 명예총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며 “이화여대는 인문, 사회, 예체능, 의학, 법학, 경영, 자연, 공학 등 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국의 비극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통일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성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한편, 모교는 1998년 북한학협동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2000년 학부과정에 북한학연계전공 개설, 2013년 북한학협동과정의 북한학과 승격 등 일찌감치 북한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학문적 토대를 갖추고 통일을 준비해 왔다. 2005년에는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인 통일학연

구원을 설립해 관련 연구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모교는 향후 윤후정 통일포럼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통일을 위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모교, 4년 연속 라이덴랭킹 국내 1위

모교는 세계 84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2016년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라이덴 랭킹에서 2013, 2014, 2015년 국내 종합대학 1위에 이어 4년 연속 최상위의 자리를 수성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하는 랭킹으로 설문조사 방식 등 주관적 평가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의 DB를 활용해 4년간의 논문을 분석한다.

2011~2014년 발표된 논문을 집계한 이번 평가에서 모교의 인용 빈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은 8.0%로,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에 이어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모교의 상위 1% 이내 논문 비율은 1.0%로 국내 최고를 기록하여 모교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 실적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학문 분야별

평가 중에서는 자연과학 및 공학(Physical Science and Engineering) 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국내 1위를 차지하였다. 모교가 4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 최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 이를 뒷받침한 대학의 지원이 있었다.

모교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13개 분야, 17개 학과(전공)를 유망전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 유전체 연구소 ‘잭슨랩(JAX)’과 2014년부터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인간화 마우스 개발과 항암치료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모교에 ‘이화-잭슨랩 암 면역치료 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세계 유전체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인간유전체기구(HUGO·HUman Genome Organization) 본부의 모교로의 이전 설치가 확정되어 인간유전체 연구 수준을 국제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 차지

모교가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전국 사립대 가운데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대표 김영호)와 토마토CSR연구소(소장 안치용)는 3월 22일(화)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모교가 4.3점 만점 중 평균 3.894점으로 전국 149개 사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대학사회책임지수’는 실적 위주의 기존 대학평가와 달리 사회적 책임 성과만을 측정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학평가이다. 2015년 12월부터 4개월간 수행된 이번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각 대학 홈페이지 등 공개 영역에서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실시됐으며,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와 토마토CSR연구소 주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인 ISO26000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대학에 속한 직원에 대한 보수나 복지, 노사관계 등을 측정한 ‘노동’ △장애인, 기회 균형 선발대상 학생 등 사회적 배려를 측정한 ‘인권’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 학생의 실질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지표로 측정한 ‘학생’ △사회봉사 참여도, 대학강의 공개실적 등을 측정한 ‘지역사

회’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에너지 절약 등 환경에 관한 실천을 측정한 ‘환경’ △대학의 법규위반 건수 등을 측정한 ‘공정성’ △총장선출방식과 기부금 등을 측정한 ‘거버넌스’ 등 7개 부문이다.

모교는 △학생 △지역사회 △환경 △거버넌스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어 연세대가 3.855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한양대(3.786점), 한림대(3.654점), 계명대(3.635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이화언론인클럽 2016 정기총회

제16회 이화언론인 상 오애리·박은영 동창 수상

모교 언론인 동창들의 모임인 이화언론인클럽(회장 김현경 MBC 논설위원, 불문 87)이 4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이화학당에서 ‘2016 정기총회 및 제16회 올해의 이화언론인 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진이 참석했다.

김현경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우수하고 풍부한 이화 출신 언론인들 덕분에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화언론인클럽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함께 시너지를 내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희 총장은 “이화언론인클럽 2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여성 언론인의 역사와 같다”며 “올해는 이화가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인 만큼 모교 홍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 한국일보 사장이자 최초의 중앙일간지 여성 주필을 역임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

화언론인클럽 회원들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화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애리(사진 왼쪽)·박은영 동창

이화언론인클럽은 2001년부터 매해 언론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이화 출신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올해의 이화언론인’ 상 수상자로는 뉴시스 국제부장 오애리(정외 84) 동창과 KBS 아나운서 박은영(무용 05) 동창이 선정됐다.

오애리 동창은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으로 언론의 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이화의 동료와 선·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언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은영 동창은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의 무게에 맞도록 노력하여 이화를 빛내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사회과학대학

회장 김미령(커미부 69)

사과대 학장 및 각 과 주임교수와의 간담회

4월 20일(수) ECC 지하 중식당 케세이호에서 함
인희(사회 81) 학장 및 이진 부학장, 각 과 주임 교수
와 동창회 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 측
에서는 함 학장을 비롯한 10명의 주임교수가 모두 참
석하고 동창회 측에서는 김미령 회장을 비롯한 각
과 회장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미령 동창회장은 “봄기
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교에서 학장님과 각 과 주임
교수님을 만나 학교와 동창회 활동에 대해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참 좋다”고 인
사하고 각 과 교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한 것에
감사했다.



사회과학대 학장 및 주임교수와 간담회를 가진 사과대 동창회

이어서 함인희 학장은 “학교와 동창회가 얼굴을
맞대고 후배들과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의
논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동창회에 감사한
다”며 9월과 10월에 예정된 사회과학대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재학생들의 공공기관 PEER를 위해 동
창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함 학
장은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이 101명, 재학생이
2,400여 명에 달하는 막강한 사과대의 현황을 소개
하고 이화 교정이 그려진 오토스타의 보조배터리를
선물했다.

오찬을 나누며 가진 이날 간담회는 전공뿐 아니라
건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얘기를 서로 나누며 약 1시
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과 동창회장은 해당 주임
교수에게 사랑이 담긴 선물도 전달했다.

또한 사회과학대 동창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선교
부장에 손문경(사회 82) 동창을 선임했다. 손 동창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동창회 선교부장을 역
임했다.

음악대학

회장 임진(작곡 72)

정기총회 및 동창모임의 날 행사

음악대학 동창회에서 개최하는 ‘2016 음악대학
정기총회 및 동창모임의 날’ 행사가 지난 3월 21일
(월)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2016년은 특별히 음악대학이 9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음악대학 각 학과별로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지순경(기악 68) 동창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각 학과별 장학생은 모두 14학번 학생들로 선발하였으며, 신채영(성악 전공), 홍예슬(관현악 전공), 이하늬(건반 전공), 서보경(작곡 전공), 김성화(한국음악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축하 연주로, 최유진(관현 03)·태승희(관현 06)·김지은(작곡 04) 동창의 <bossa Nova for Spring (김지은 작곡)> 연주에 이어, 우숙영(피아노 87)·장진영(건반 06) 동창이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Liebesleid)>과 <사랑의 기쁨(Liebesfreud)>을 연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화그레이스콰이어(Ewha Grace Choir)는 <African Alleluia(Jay Althouse)>와 <이 기쁜 날(조성철 작곡)>을 연주하였다.

또한 5월 20일(금)부터 6월 3일(금)까지 음악대학 동창회 주최, 음악대학 후원으로 2016년도 이화 음악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5월 20일(금) 성악과 연주는 류미(성악 07)·김민지(성악 04)·김태은(성악 03)·양송이(성악 01)·추주현(성악 94)·이미선(성악 90)·윤명자(성악 80) 동창과 피아노 이영미(피아노 04) 동창의 반주로 진행되었다. 5월 25일(수) 연합 페스티벌은 작곡과 전영진(작곡 04) 동창의 작품을 이종선(건반 10) 동창이 연주했으며, 김주혜(작곡 02) 동창의 작품을 태승희(관현 06) 동창과 이종선 동창이 연주하였다. 정재은(작곡 99) 동창의 작품은 채수아(피아노 92)·김신혜(관현 05)·우미영(관현 07) 동창이 연주하였다. 관현악과 연주는 송미경(관현 12)·주고은(관현 10)·정민정(건반 13) 동창의 연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음악과 이선희(한음 00) 동창의 판소리와 이수은



음악대학 동창회는 학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한음 02)·김성민(한음 07)·정부경(한음 14)·민세희(한음 14)·박영아(한음 16) 동창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5월 30일(월)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는 작곡과 강영화(작곡 86) 동창의 작품을 이귀란(피아노 90) 동창이 연주하였으며, 종교음악과 정혜경(종음 86) 동창의 연주가 있었다. 6월 1일(수) 피아노과 연주는 배주은(피아노 93)·조영숙(피아노 92)·김윤지(건반 04)·정승미(건반 05)·권주희(건반 07)·김민정(건반 07)·이지영(피아노 01)·김선옥(건반 03) 동창이 참여하였다.

6월 3일(금) 종교음악과 연주는 강다영(건반 04)·최주리(종음 02) 동창의 오르간 연주와 이화그레이스콰이어(지휘: 김상희·종음 96, 반주: 정수연·종음 01)·소프라노 이윤정(종음 96)·피아노 서지연(종음 98) 동창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조형예술대학

회장_김은영(장미 85)

'2015 VISION 이화미술인전' 개최

3월 29일(화) 모교의 조형A관 2층의 이화아트센터에서 녹미회(조형예술대학 동창회)가 주최한



'2015 VISION 이화미술인전'이 녹미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2015 VISION 이화미술인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전시회에서 조형예술대학의 10개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공모전을 통해 각 과의 교수진과 동창회장단이 직접 선정한 우수 학생 10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올해 전시의 주인공은 강유진(패션디자인 16)·김스나(공간디자인 16)·김진희(산업디자인 16)·박자일(도예 16)·배윤재(동양화 16)·유수연(영상디자인 16)·전다운(시각디자인 16)·최은영(서양화 16)·하성민(조소 16)·허란(섬예 16) 등이다.

이번 행사는 전시 개막을 알리는 김은영(장미 85) 녹미회장의 개회사와 이해선(생미 92) 조형예술대학 부학장의 축사 속에서 10명의 작가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은영 녹미회장은 "공모전을 통해 젊한 후배들의 작품과 마주하며 놀라운 가능성과 열정에 큰 기쁨을 느낌과 동시에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10인의 새내기 작가의 수상 소감이 이어졌으며, 각 과 교수, 동창회장,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시회의 오프닝 행사를 마쳤다. 전시는 4월 2일(토)까지 열렸다.

사범대학

회장 신경희(수교 77)

김애마 선생 부조 제막식 가져

사범대학 동창회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7일(금) 김애마 선생 부조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은 차미희(사회과교육 83) 부학장의 사회와 이영하 교수의 감사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김애마 선생의 교육 정신을 모든 사범인들과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김성원 학장의 인삿말이 있었다.

신경희(수교 77) 사범대학 동창회장의 경과보고와 스승 김애마 선생을 추억하는 안인희(교육 49)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김애마 선생이 쏟았던 이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금의 사범인들에게도 기대하면서 미래지향의 교원교육을 부탁하였다. 이어 교육관 B동 김애마홀 입구에 설치된 부조 제막 후 윤퇴 교수들의 회고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현실: 직시와 도전의 절벽'이라는 주제로 오옥환 명예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5월 27일(금)에 열린 김애마 선생 부조 제막식



의과대학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50차 정기총회

의과대학

회장__오혜숙(의학 78)

제50차 정기총회 개최와 안산자락길 걷기대회

3월 5일(토)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2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과대학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김경효 의전원장이 역대 동창회 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화 의대 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에스더’를 기리는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11회 문용자(의학 62) 동창이 수상하였으며, 울산대 의대 강릉아산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35회 최건무(의학 86)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 ‘올해의 이화인’이 1,000만원을, 35회 동기들이 4,000만원을 모아 총 5,000만원을 35회 장학금으로 쾌척하였다.

오혜숙 동창회장은 1억 7,700만원의 장학금을 59명(1학기: 32명, 2학기: 27명)의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동창회 창립 60주년, 7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날이 발전하는 이화동창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또한 4월 5일(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6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있었다. 2016년 부서별 사업계획발표가 있었으며, 울산대 의대 교수 박주현(의학 95) 동창의 ‘오페라에 빠지다’ 강의가 있었다.

한편 4월 10일(일) 108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걷기대회 후 작년처럼 장명수 이사장의 초대로 북아현동의 공관 뜰에 모여 오찬을 즐겼다. 이 자리에서 오혜숙 동창회장의 새 병원 건립기금 10억원 기부약정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찬 후 캠퍼스투어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간호대학

회장__조혜숙(간호 76)

남가주 지부 간호대학 동창회에 참석

3월 27일(일)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 지부 간호대학 동창회가 미국 LA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LA 지역 동창으로는 양정남(간호 60) 동창 외 15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김진향(간호 73) 간호대학 동창



LA에서 개최된 남가주지부 간호대학 동창회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회장 외 7명,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은 남가주 지부 간호대학 동창회장인 김혜숙(간호 72)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각자 소개와 동창회 활동보고가 있었다. 이어 김진향 간호대 동창회장은 2016년의 간호대학 복원 및 동창 소식과 이화의료원의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의 교육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헬렌관 재건축 기금 마련에 대한 활동과정과 실적을 보고하였다. 이에 김혜숙 남가주 지부 간호대학 동창회장과 현 남가주 이화 동창회 고문 박화자(간호 66) 동창의 열성적인 모금운동에 힘입어 남가주 동창들은 약 4만 달러의 건축기금을 약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시 한 번 이화간호인의 저력을 확인한 매우 감동적인 남가주 간호대학 동창회였다.

한편 5월 31일(화) 간호대학 신임 동창회장으로 조혜숙 동창이 임명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_박하영(약학 77)

정기임원·기대표회 및 동창회 선교부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3월 15일(목) 역삼동 ‘루안’에서 임원과 각 기의 대표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기대표회가 열렸다. 회장 인사와 각 부의 보고가 있었고, 약대 건축기금으로 현재 17억여 원의 기금을 모았다고 보고했으며,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4월 7일(목) 정원노인요양원 및 치매병원을 동창 32명이 방

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16회 선배들의 합창과 율동 그리고 후배 동창들의 코미디언스, 까투리 무용단의 춤이 펼쳐졌고,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4월 28일(목) 용산가족공원에서 ‘제35회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선후배 동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40주년을 맞은 27기 동창들이 점심을 준비했고, 보물찾기와 각 기별 장기자랑을 하며 아름다운 봄나들이를 즐겼다.

5월 3일(화) 이대 ECC 이삼봉홀에서 약대 동창회 선교부 30주년 기념예배가 130여 명의 동창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약대 동창회 선교부는 1986년 이화 100주년을 기해 교수 한 명, 동창 두 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월 월례예배를 이어오고 있다. 약대 동창회 선교부는 30주년을 기념하며『선교부 30년사 기념문집』을 발행했다.

5월 31일(화) 동창의 날 행사에는 이승진 학장이 졸업 50주년, 30주년을 맞은 동창과 합창단원을 위해 다과를 마련하였고, 약대 동창회 합창단은 합창제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1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합창제 참가를 위해 연습했던 3개월 간은 선후배 간 진정한 화합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친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1등을 수상한 약대 동창회 합창단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__김혜정(72)

2016 영학회 춘계강좌

5월 17일(화) 2016년 영학회 춘계강좌가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03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정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성혜옥(70) 동창의 기도에 이어 이정숙(77)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원광디지털대 주선희 교수를 연사로 초빙한 강연은 ‘행운을 부르는 얼굴 경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상학은 관상과는 달리 타고난 운을 자신의 노력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영학회 활동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다.

6월 1일에는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었다. 그동안 혁신적이고 내실 있는 ‘영학회의 밤’ 행사를 이루어내는 등 수고가 많았던 이정숙 회장단이 2년의 임기를 마쳤다.



2016 영학회 춘계강좌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김혜정 신임 회장단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개심사와 해미읍성 등 서산 쪽으로 나들이를 하고 임원들의 결속을 다졌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마송민(75)

불문과 동창회 개최

4월 20일(수)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불문과 동창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6회 동창모임(1966년 졸업)이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재학생 두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불문과 동창으로 결성된 ‘아미합창단’이 <L’amour Triomphe de Tout>〈아리랑〉 두 곡을 열창하였다. 끝으로 나승연(95, ‘오라티오’ 대표) 동창이 ‘평창 2018에서 배운 소통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불문과 동창회에는 100여 명의 아미 동창들이 참석하여 동창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불문과 동창회에 참석한 동창들

기독교학과

회장_이숙진(87)

신구 동창회장 이·취임식

5월 19일(목) 모교 미관 회의실에서 기독교학과 신구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정인숙(76) 전 회장 및 회장단은 동창아유회 및 바자회 등 선후배 간의 모임의 장을 마련하여 동창기금을 마련하고, 동창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는 등 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교수 및 후배 동창들은 그 동안의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하였다. 한편 차기 회장으로는 이숙진 동창을 선출하였다.



신구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기독교학과 동창회

사학과

회장_한혜련(75)

간사회 및 봄 정기답사

3월 24일(목) 티원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3월 12일(토) 개최된 총동창회 정기총회와 신입동창 환영회 참석 보고가 있었다.

4월 28일(목) 경기도 여주 영녕릉으로 봄 정기답사를 다녀왔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선배들로부터 세종과 효종을 둘러싼 풍성한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5월 26일(목) 티원에서 간사회를 열고, ‘올해의



여주 영녕릉으로 봄 정기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회

이화인'으로 선정된 강영선(86) 간사 소개와 총동창회 바자회 안내를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문헌정보학과

회장_정연경(85)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2016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4월 16일(토)에 모교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창회 2015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문헌정보학과 소식, 신입동창 환영, 기부물품 판매 및 행운권 추첨 등이 있었다.

1963년에 졸업한 1기 대선배부터 2016년 졸업한 신입동창까지 총 52명이 참석하여, 선후배 간 네트워킹 강화와 문헌정보학과 발전을 도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문헌정보학과 동창회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석영인(77)

참신한 구성의 정기총회로 호응

2016년 정기총회를 4월 14일(목)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JCC 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졸업 50주년, 30주년을 맞는 3기와 23기 동창들을 축하하는 석영인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멋진 장소와 참신한 구성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23기 조희수 동창(86)이 선정되었으며 동창회의 활동을 소개한 동영상 상영과 박화숙(74) 동창의 태평무 공연, 박정자(2기), 04명예졸업) 동창의 모놀로그 연극 <아멜다 마르코스의 항변> 등이 이어졌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총회가 동창들의 재능 기부로 즐거운 문화 체험장이 됨으로써, '참여하는 동창회'라는 20대 동창회의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5월 25일(수) 60여 명의 동창이 강화도 나들이를 다녀왔다. 강화도 나들이 19개의 코스 중 숲길을 끼고 걷는 제3 코스를 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숨겨진 강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었다. 계획부터 일정 조절, 나들길 안내까지 (사)강화나



강화도 나들이를 다녀온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회

들길 이사장으로 있는 4기 이민자(67) 동창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삼삼오오 동창들끼리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동양화과

회장_이숙진(85)

제35회 채연전 개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희원-함께 바라보고 꿈꾸다'라는 주제로 3월 16일(수)부터 22일(화) 까지 인사동 아라이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총 78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원문자(66) 명예교수, 이신호(72) 동창, 김귀주(74) 전 녹미회장, 정선진(74)·이미연(76)·이은영(78) 전 동창회장들과 김보희(74)·오숙환(75)·서은애(93)·이기영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동문전에 출품한 작품 중 두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35회 채연상은 이신호·이아영(06) 동창이 수상하였다.



제35회 채연전을 개최한 동양화과 동창회

5월 9일(월) 인사동 하누소에서 선후배 동창들과 함께 은사를 모시고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원문자·오용길 명예교수, 김보희·오숙환·이종목·이기영·서은애 교수를 모시고 5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하는 가운데 고견을 들으며 감사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5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이화 칭립 130주

년 기념 예술행사인 ‘아트페스타 이화’ 전시에 동창 90여 명과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조형예술대학 A관 2층에서는 동양화과 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이끌고자 동창회에서 제정한 ‘내일의 작가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이데 이전에 출품한 작품 중 한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내일의 작가상’은 신지영 재학생이 수상하였다.

5월 31일(화) 동창의 날 행사에서 열린 합창대회에 이신호(72)·이숙진(85)·임미혁(86)·기유경(88)·구미경(94)·윤정원(94)·박지민(04) 동창이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동창회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박성희(86)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조소과

회장 이선희(81)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열어

3월 10일(목) 인사동 최대감집에서 동창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업무 및 결산 보고, 회장 이·취임식(전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및 임원진 선물 증정)과 새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6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회칙 개정, 동창회 주소록 정리, 이화 창립 130주년 아트페어, 제8회 비전 이화 마술인전 전시, 창립 13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날 행사, 제33회 이화조각전, 이화인의 밤 행사 등을 논의하였다.

5월 10일(화) 오미가에서 16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선희 회장이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동창회 및 조각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안건들을 주제로 제출해 함께 토의하



3월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였고,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후배 간의 훈훈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예술행사 ‘아트페스타 이화’에 이선희 회장, 나진숙(84) 부회장을 포함한 38명의 동창이 참여하였고, 5월 31일(화)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올해의 이화인’으로 손미란(86) 동창이 선정되어 자리를 빛냈다.

섬유예술과

회장 봉지희(85)

한일 미술·공예 교류전 개최

모교 조형예술대학 동창 작가들의 ‘한일 미술·공예 교류전’이 강릉 시립미술관 초대전으로 2월 16일(화)부터 28일(일)까지 열렸다. 이 행사는 강릉시 문화재단 관계자,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대표, 강릉시 문화예술 애호가, 모교 동창 등 내빈이 참석한 가



한일 미술·공예 교류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섬예과 동창들

운데 성황리에 끝났으며, 이어서 3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모교 조형예술관 이화아트센터에서 릴레이 전시되었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섬유예술과, 도예과 등 5개 전공 36명의 동창 작가들과 일본 교토대학 동창 작가 17명의 연합전으로 한일 작품 교류의 장을 펼쳤으며, 전시 종료일인 12일(토)에는 조형예대 동창회인 녹미회 김은영(장미 85) 회장을 비롯하여 5개과 동창회장, 전시기획자인 장영란(섬예 77) 수원대 교수가 참석한 한일 작가들의 교류회가 모교 ECC에서 있었다.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회장__신선희(82)

정기 동창회 개최와 특별 초청 강의

2016년도 정기 동창회가 5월 21일(토) 부암동에 위치한 한옥에서 1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선희 동창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에서 김스나(16) 동창 및 이보윤(13학번)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또한 주남철 고려대 건축과 원로 교수와 황일인 일건건축 소장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고(故) 김길홍 교수의 사모인 길영란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창회 축하행사로는 전통떡상을 재현하여 떡상의 유래와 종류를 알아보고, 다도 명인을 초빙해 다



한복을 입고 모인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동창들

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축하공연으로 서울대 최우정 교수의 앙상블팀 TIMF의 가야금 산조 무대를 즐겼다.

이날은 ‘추억,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모든 동창이 한복을 입고 모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차이김 한복이 함께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저녁식사와 함께 동창들이 기부한 경품을 나눠가지며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도예과

회장__이재숙(86)

사제 기획전과 도림전 개최

이화여대길 52에 자리잡은 인큐베이터 52에서 4월 기획전 ‘줄탁동시(疎琢同時)’가 있었다. 전시는 4월 19일(화)부터 30일(토)까지 이어졌으며 박노경(88)·정호정(90)·김지혜(91)·이은미(91)·김혜정(93)·백진(93)·이인숙(93)·이지은(93)·최영희(98)·이은(01) 동창이 참여하였다.



제37회 도림전을 개최한 도예과 동창회

‘줄탁동시’란 닦과 병아리가 동시에 알을 안팎에서 쪼아 부화하는 찰나를 표현한 것으로 사제 간의 인연이 어느 기회를 맞아 더욱 두터워짐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이다. 모교 도예 전공의 교수 및 강사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서 전시 주제와 같은 사제 간의 가르침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예과 동창회 ‘도림회’의 전시 ‘도림전(陶林展)’이 ‘37 SIGNALS’라는 주제로 이화아트센터에서 5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개최되었다. 도림전은 37년간 지속되어 온 도예과 동창들의 전시회로, 37회 도림전에는 66명의 도예과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한국 도예의 전통의 맥에서 시작되어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매년 다양한 ‘도림전’ 전시를 통해 함께하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들은 소통과 배움, 나눔으로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들이 되고 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은사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 유교과 동창회

즈음에 사제 간의 기념행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회장__장태옥(87)

은사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해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2016년 5월 11일(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를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1986년 졸업 동창들을 비롯하여 전·현직 동창회 임원과 유아교육, 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스승의 은혜>를 함께 부르며 은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은사의 가슴에 손수 제작한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리며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1부는 유정옥(88) 부회장의 사회와 장은경(87)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장태옥 회장의 감사인사, 선물 증정 및 축하 케이크 커팅, <스승의 은혜>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환(교육 55)·이은화(유교 59)·이기숙(유교 72) 은사와 현직 교수를 대표하여 홍용희(유교 78) 학과장이, 자리를 마련한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2015년 유아교육과 100주년 행사에 초대되었던 ‘카이로’를 초청하여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5월 스승의 날

특수교육과

회장__한은주(79)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열어

5월 26일(목) 동창회 주관으로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퇴직 교수와 현직 교수들을 모시고 1회 선배부터 올해 졸업생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동창들만이 나눌 수 있는 추억과 비전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모교 특수교육과의 발전을 위해 동창회에서 물심양면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해어지는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사은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진 특수교육과 동창회

※《이화동창》 봄호(142호)에 실린 작곡과 소식에서 ‘작곡과 동창회 발족식’을 ‘작곡과 동창회 친목 모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가나다순으로 계재

남가주(LA) 지회

회장_장경해(피아노 75)

이화 창립 130주년 행사 참석차 모교 방문

남가주 지회에서는 40여 명의 동창이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모교를 방문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5월 21일(토)부터 5월 25일(수)까지 30명의 동창이 함께한 서해안 관광은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다. 서해안 쪽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친목을 나누었으며, 5월 26일(목)에는 박화자(간호 66) 학창단 운영위원장이 오래 전부터 수고를 해주어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수 있었다.

5월 28일(토)에는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 회장이 초대하는 ‘해외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으

며, 5월 29일(일)에는 주일예배 후 <마타하리> 뮤지컬을 단체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30일(월)에는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마련한 ‘이화사랑 모교방문 해외동창 초청 오찬 모임’에 참석한 후에 대강당에서 열린 ‘리마인드 채플’과 ‘이화 창립 130주년 감사찬양제’에 참석하였다. 곧이어 ‘성가찬양제’가 있었는데, 김미순 선교부장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남가주 지회 동창들은 특별 친양으로 참여하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이후 이어진 모교 투어 시간을 통해 교정을 오랜만에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ECC 등 신축 건물을 보며 모교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다.

5월 31일(화) 10시에 모교 기념식과 12시에 ‘총장 초대 오찬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어 2시에 총동창회 주최 ‘이화 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 학창제에 남가주 지회 학창단(운영위원장: 박화자, 총무: 박신화·기독 70, 지휘: 안정화·성악 84, 반주: 주희정·피아노 10) 34명이 참여하여 <그대 사랑 있는 곳>과 <손에 손잡고>를 불러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해외 거주하는 동창들이 모교를 방문해서 학창공연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6월 1일(수)에 있었던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 관람은 매우 아름답고 좋았다.

남가주 동창들은 모교에서 준비한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모교의 많은 발전을 보고 느끼며 이화인의 긍지



해외동창 초청 오찬 모임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참여한 동창의 연령이 50대에서 90대까지여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지난 몇 달간의 기도제목이었는데, 5월 19일(목)에 LA공항을 출발한 동창들이 계획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6월 2일(목)에 LA공항에 도착하였음을 감사드린다. 합창단 단원으로 동참한 목사 김희숙(약학 62) 동창이 매순간마다 기도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

7월 2일(토) Seal Beach에 있는 Leisure World에서 개최한 한여름 축제(Summer Festival)에 남가주에 거주하는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서 모교 방문 기록과 이화챔버콰이어 영상을 함께 보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지회

회장__최정숙(영문 81)

10주년을 맞이한 동문전

모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녹미회는 2007년 첫 동문전을 열게 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전시회를 열고, 전공과 나이를 초월하여 개성 있는 작업을 하는 11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정은(서양 70)·김주희(서양 72)·장주월(생미 72)·권태희(서양 80)·류시숙(서양 82)·이영미(서양 82)·박윤미(섬예 83)·권진현(동양 84)·김명



제10회 녹미회 정기전을 개최한 대구 지회

옥(서양 86)·강문희(서양 89)·이정원(조소 89) 동창의 최근작 20여 점과 함께 작품이 담긴 컵 등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소품들도 준비하였다.

멜버른 지회

회장__박성혜(기독 95)

거문고의 깊은 선율과 함께한 모임

4월 13일(수) 박성혜 회장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멜버른 지회 최고령자 고경자(동양 63) 동창의 참석을 모두가 반겼으며, 김명희(가정 66) 동창이 주최가 되어 모집한 남태평양 크루즈 여행에 대한 얘기와 박혜진(독문 97) 동창의 집 매매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노지희(국악 93) 동창의 거문고 연주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의 깊고 오묘한 소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된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거문고를 연주하는 멜버른 지회 노지희 동창

미네소타 지회

회장__홍성주(경영 89)

총회 및 새 회장단 선출

5월 14일(토) 이화동창총회 및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주재강(화학 57)·주재죽(생물



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선출한 미네소타 지회

65)·황성숙(국문 68)·이영희(정외 70)·이은영(가관 71)·서윤순(작곡 79)·박은경(영문 84)·김성숙(사회 85)·임혜순(약학 89)·김정은(체육 90)·김지언(수학 91) 동창이 참석했다. 먼저 오색나물 비빔밥과 전으로 맛난 점심식사를 한 후, 새 회장단 선출 및 인준, 국제 재단 기부금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새 회장단은 회장 홍성주 동창, 부회장 김정은 동창, 회계 안수희(사복 95) 동창, 총무 김지언 동창이다. 총회 이후 현재 미네소타 주정부에서 교육 관련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박은경 동창이 미네소타 입양아들의 웰빙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었다.

2년간 동창회 회장직을 맡고 미네소타 이화동창의 화합을 위해 애써준 김성숙 동창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또한 지난 6년간 동창회 회계를 맡았던 박은경 동창이 산호세로 이사를 하게 되어 많은 동창들이 섭섭해 하며 새로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하였다.

밴쿠버 지회

회장__김희연(가관 71)

음악을 통해 문화적 교류 나눠

4월 2일(토) 한국과 캐나다문화사업교류재단 주최의 새봄 음악회 공연에 우리 동창들이 출연하였다. 1부에서는 소프라노 이장연(성악 85) 동창이 <신 아리

랑> 외 총 6곡을 열창하였으며 피아노 반주는 홍승도(피아노 85) 동창이 하였다.

2부 공연에서는 이장연 동창과 윤계은(국악 92) 동창의 공연이 있었으며, 박혜정(관현 82) 동창이 지휘하는 뮤즈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박동창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 작곡한 <꿈배를 띄우자>와 <자구마을> 동요는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 교과서에 각각 실려 있다. 또한 2세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어주기 위하여 밴쿠버한국어학교에서 한국 동요를 지도하고 있다. 박동창의 활발한 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밴쿠버 지회에서는 동창들의 문화적 활동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바구니를 선물하였다.



한국과 캐나다문화사업교류재단 주최 음악회에 참여한 밴쿠버 지회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곽정연(독문 76)

새 회장단 선출과 모교 방문

3월 5일(토) Oakland 소재 한식당 오가네에서 32명의 동창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곽정연 동창의 업무보고, 조성연(사회 90) 동창의 회계보고 그리고 김민영(영문 98) 동창의 서기보고가 있었다.



4월 정기모임에서 새 회장단과 함께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신임회장으로 곽정연 동창이 선출되었고,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의 선출이사로 김성숙(법학 60) 동창과 최충자(사회 62) 동창이 선출되었다. 그동안 많이 변경된 동창 주소를 업데이트 해서 새 동창회 주소록을 동창들에게 배부하였다.

4월 2일(토) Hillsborough의 곽정연 신임회장 집에서 38명의 동창들과 새 회장단이 첫모임을 가졌다. 새 회장단의 임원으로 부회장에 박여순(사회 69) 동창, 총무에 정순진(의직 80) 동창, 회계에 홍순희(교공 68)·이아람(관현 94) 동창, 서기에 송명희(보교 86) 동창이 임명되었다.

5월 7일(토) Oakland의 고기타임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한편, 모교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북가주 지회에서는 12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5월 28일(토)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과의 ‘해외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5월 30일(월)에는 오진경 대협처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5월 31일(화)에 창립 130주년 기념식과 오찬, 동창의 날 기념 합창제에 참석하였다. 특히 6월 1일(수) 원주 ‘뮤지엄 산’ 방문은 “깜짝 놀랐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좋았다.

이화사랑 모교방문 프로그램에 해외 동창을 친정어

머니처럼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해준 총동창회 및 모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선교의 달, 정기모임 가져

4월 10일(일) 서라벌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4월은 우리 지회가 ‘선교의 달’로 지정하고 그동안 선교 활동을 해온 동창들의 선교 보고를 듣는 날이다.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황성희(유교 74) 동창은 이날 ‘어머니는 선교사’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황 동창은 작년에 교회 선교팀과 이대동창회 후원으로 12마리의 염소를 과테말라에 마련해주고, 축사를 지어주었다. 황 동창은 가정에서의 선교자로서 어머니의 첫 역할은 ‘출생 셀레브레이션’이라며,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태어난 귀한 생명을 축복하며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1886년 스크랜튼 여사의 선교적 사명이 오늘의 이화가 되는 초석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6월에 다시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황 동창에게 선교비를 자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였다.



4월 ‘선교의 달’ 정기모임을 가진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성혜(보교 88)

Happy 80+ Party 개최

3월 8일(화) 강춘형(약학 65) 동창의 부군이며 포항공대 총장을 지낸 장수영 박사가 ‘대한제국의 역사’를 주제로 진행한 역사 강의에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 37명이 참석하여 강의와 점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워싱턴DC 동창들의 이사회비로 운영되는 워싱턴DC 지회 이화국제하계대학 장학금을 Katherine Kashima(University of San Francisco)와 Juhyae Kim(Swarthmore College)에게 수여하였다. 4월 15일(금)에는 사회사업 부장 서혜경(정외 90) 동창 주최로 13명의 동창들이 Katherine K. Hanley FamilyShelter를 방문하여 시설 견학 후 준비한 점심식사를 서빙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었다.

4월 23일(토)에는 이정렬(사생 61) 동창 집에서 Sunshine Committee Chair 조은희(경제 91) 동창의 주최로 80세 이상 되는 동창들을 초청하여 Happy 80+ Party를 열었다.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행사에 80세 이상인 윤순자(보육 39)·강서라(음악 49)·김복희(성악 49)·강정희(영문 50)·백경진(피아노 50)·이은옥(약학 52)·김영보(영문 56입)·이영숙(정외 58)·김영옥(정외 59)·윤경자(정외 59)·신복순(서양 60)·이도실(영문 60)·이은숙(사학 60) 등 13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부장 최유정(무용 96) 동창의 진행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김복희 동창의 독창과 강서라·백경진 동창의 피아노 듀엣 퍼포먼스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다. 특히 많은 동창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도네이션 및 운전이 어려운 동창들을 위한 차량봉사 등이 이루어져 아름답고 훈



Happy 80+Party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훈한 가운데 뜻 깊은 행사를 마쳤다.

5월 14일(토)에는 춘계 야유회가 레스턴에 위치한 Lake Fairfax Park에서 열렸다.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물론 멀리 웨스트버지니아에서도 참여한 동창 50여 명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바비큐와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최유정 동창의 진행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일본 지회

회장__고정희(장미 74)

2016년 정기모임 열어

6월 11일(토) 신주쿠의 일본 전통 식당에서 2016년



신주쿠의 일본 전통 식당에 모인 일본 지회 동창들

도 정기모임이 있었다. 정태영(생미 69) 상임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고정희 회장이 2015년도 활동보고 및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 참가보고를 했으며, 2017년 3월 31일(금)부터 4월 2일(일)까지 열릴 예정인 싱가포르 연수(아시아 연합동창회)에 대한 설명과 참가 희망을 수렴하였다. 오랜만에 참가한 정정자(커미부 65) 동창과 함께 활기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 임영미(유교 83)

교환학생으로 온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약 70여 명의 동창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약 20여 명의 동창들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이라는 명칭으로 모여 친교와 정보를 나누며 동창회 행사를 의논하고 있다. 지회에서는 기금을 모아 지역사회 봉사 및 기부를 하고 있고, 이화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모교의 기숙사 건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1월에는 임영미 회장 집에서 오찬을 나누며 이화 만남의 한 해 계획을 세웠고, 2월에는 노희용(약학 82) 동창집에서 태극권을 배우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3월에는 이화 만남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로 이화 후배들이 교환학생으로 있는 Baldwin Wallace 대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클리블랜드 지회

오찬을 나눴다.

우리 지회는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경로잔치 행사를 열고, 11월에는 동창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하여 연례 만찬을 가지며 친목 도모를 하고 있다.

파리 지회

회장__ 홍성부(생미 84)

홈커밍데이 개최

3월 4일(금) 대선배들을 초대하는 재불이화 홈커밍데이 행사를 홍성부 회장 집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조화숙(동양 49)·이충석(교심 56)·민경화(국문 62)·이병주(불문 62)·장옥희(교심 69입)·송미영(불문 76)·이현미(정외 81)·함미연(불문 81) 동창 및 신임 동창회 임원으로 회장 홍성부·홍보 담당 한연미(정외 90)·부회장 박현선(의직 91)·총무 박세연(서양 94)·서기 박지은(가관 96)·회계 함화진(컴공 02) 동창이 참여하여 식사 및 다과와 함께 타지 생활의 어려움과 정보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한 파리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 김선주(국문 72)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필라델피아 근교, 남부 뉴저지 그리고 엘라웨이까지



배성호 박사와 함께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포함하는 필라델피아 지회는, 2016년부터 매달 모임 장소를 접근성이 좋은 챌튼햄 한아름 옆 레스토랑으로 옮겨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월 새해 모임을 시작으로 3월에는 남광희(의직 73) 동창의 부군인 신경과 전문의 배성호 박사를 초빙해 모두의 관심사인 ‘치매’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필라델피아의 자랑인 Barnes Museum 을 방문해, Dr. Albert Barnes의 주옥 같은 Collection 을 보며, 봄의 정취에 빠져 보았다.

5월엔 부군들 포함 골프대회를, 6월엔 꽃꽂이 강습을 하였다.

필라델피아 지회는 이 모든 행사에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노력의 일환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해는 동창주소록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항상 아낌없이 도와주는 여러 선·후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휴스턴 지회

회장_김명옥(경영 75)

북미주지회연합회 준비에 한창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6년 11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휴스턴에서 열린다.

3월 23일(수)에는 11월에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관광코스를 답사했다. George Ranch Historical Park 는 1800년대부터 근대까지 텍사스 역사와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 민속촌이 있고, 카우보이 옷차림으로 서방하는 텍사스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1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자연을 즐기며 4대가 살았던 텍사스의 역사를 지켜보았고 동창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3일(토)에는 매년 하는 행사로서 교포 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자급할 기금 마련을 위해 창고 세일을 했다. 20여 명이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판매하여 후원금과 함께 2,000불 이상을 마련하였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동창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5월 21일(토)에는 식당 고려원에서 기독교인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확실한 미래를 꿈꾸는 교포 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구희경(사생 86) 장학 위원장은 장학생을 에세이, 추천서, 성적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눌 의지가 있는가, 나이에 맞는 구체적 목표를 가졌는가,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가를 보고 선정하였다. 차세대의 리더로 세워질 2명의 여학생을 크게 기대해본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신금례(서양 49)·원경자(서양 65)·김경은(동양 66)·
이명순(교공 73)·김효정(서양 77)·박인옥(서양 85)·
신미선(서양 85)·유은자(서양 85)·이미란(서양 85)·
이혜정(서양 85)·윤경(서양 86)·이경애(서양 86)·
천동옥(서양 86)·이미경(서양 87)·정현실(서양 87)·
이영신(서양 88)·이인경(동양 89)·최경아(동양 89)·
김찬미(동양 08) 동창

이화기독미술인회(회장 원경자)는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5월 26일(목)부터 6월 7일(화)까지 서울 강남구 밀알미술관에서 ‘하나님의 식탁 100호전’을 개최하였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모교 동창들로 이루어진 기독미술인 모임으로, 이번이 두 번째 전시회이다.



이화기독미술인회 동창들

김양식(영문 54) 동창

김양식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인도박물관에서는 5월 6일(금) 태고르 탄생 155주년을 기념하는 ‘태고르 시와 노래’ 행사를 열었으며, 5월 15일(일)부터 17일(화) 까지 인도 첸나이 지역 수해복구 지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행사를 주최하였다. 한편



김양식 동창

인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인도현대 회화’ 특별전이 5월 15일(일)부터 7월 30일(토)까지 인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태련(심리 60) 동창

모교 명예교수이자 아이코리아 회장인 김태련 동창이 4월 28일(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소롭티미스 한국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런 소롭티미스트 여성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동창은 6월 2일(목)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희망의소리 주최 ‘2016년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 대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식개선 부문상을 수상하였다.



김태련 동창

이경순(커미부 67) 동창

4월 19일(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YWCA가 좋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자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순 동창은 ‘YWCA가 좋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첫해부터 20년간 심사위원으로 봉사해왔다.



이경순 동창

김경자(약학 68) 동창

5월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청작화랑에서 초대전 ‘Nature’s Rhythm’을 열었다.



김경자 동창

이강원(커미부 70) 동창

5월 16일(월)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이강원 동창이 2016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강원 동창은 세계장신구박물관 개관 아래 한국의 문화와 한국 박물관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강원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인 양수화 동창이 창단 25주년 기념으로 G. Bizet의 오페라 <카르멘>을 5월 27일(금)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선재숙(의학 72) 동창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선재숙 동창이 5월 21일(토) ‘The Prestigious Veterans of America 2016 Speedy Award’ 시상식에서 2016년 ‘스피디 어워드’를 받았다. 이 상은 미국 재향군인 단체에서 주는 최고의 상으로 선 동창이 이 상을 수상함으로서 최초의 외국인 수상자가 되었다.



선재숙 동창

심정순(영문 72) 동창

승실대 영문과 명예교수인 심정순 동창이 베를린 자유대학의 초빙교수로 선발되어 2015~2016년 임기 동안 세계의 공연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심정순 동창

손병옥(영문 74) 동창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이사장 손병옥 동창은 5월 16일(월) 푸르덴셜생명과 공동 개최한 ‘제8회 메이크어위시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기금 2억 2,700만원을 조성했다. ‘30명의 소원이 이뤄지는 특별한 골프대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120여 명의 기업인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손병옥 동창

이광희(국제사무 74) 동창

패션디자이너 이광희 동창이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의 빈곤 퇴치와 주민들의 자립을 돋기 위해 5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이광희부띠끄 본사에서 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었다. 2009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최빈국 남수단을 방문한 이 동창은 톤즈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나무’ 재단을 설립하였고, 2011년 10월 국제 NGO 인가를 받았다.



이광희 동창

함순옥(동양 74)·이은영(동양 78)·채성숙(동양 82)·박정란(동양 86) 동창

3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후소회 창립 80주년 전인 ‘중흥–한국화’ 전에 참여하였다.

장영란(섬예 77) 동창

한국공예가협회 아트페어 추진 위원장이자 수원대 교수인 장영란 동창은 한·일 교류 5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국제공예미술교류전을 기획하였다. 일본 이타미 시립공예미술관 초대전은 4월 1



장영란 동창

일(금)부터 4월 24일(일)까지 열렸다.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남성희 동창이 총장으로 있는 대구보건대학교는 6월 1일(수) 보현박물관을 개관하고 개관특별전을 열었다. 보현박물관은 경남 밀양시 대구보건대 보현연수원 내에 위치해 있다.



남성희 동창

조은미(무용 78) 동창

조은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현대무용단-팀이 4월 7일(목) 모교 삼성홀에서 조 동창의 안무 <길 위에>를 공연하였다. 한편 모교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교 무용과 현대무용 전공 학부생과대학원생이 참여한 ‘이화현대무용제’가 4월 9일(토) 모교 삼성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은미 동창의 신작 <바다, 스페이스, 이미지>를 무대에 올렸다.



조은미 동창

우순옥(서양 81) 동창

모교 조형예대 교수인 우순옥 동창이 5월 13일(금)부터 6월 12일(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무위예찬’ 전을 개최하였다.



우순옥 동창

유세경(커미부 82) 동창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유세경 동창이 제3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31일(목)까지이다.



유세경 동창

채성숙(동양 82) 동창

4월 9일(토)부터 15일(금)까지 현대아산병원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김경미(국문 83) 동창

3월 23일(수) 논현동 콜라보서점 북티크에서 ‘자기록: 여자, 글로 말하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 동창이 번역, 소개한 『자기록』은 한국출판문화상 편집부문 수상작이다.



김경미 동창

김민선(김정배·관현 83) 동창

김민선 동창이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55년 뉴욕 한인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회장이다. 김 동창은 통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인권국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음악전문학교 통아일랜드 컨서버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선 동창

변은경(간호 83) 동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변은경 동창이 제41회 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출되어 2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변은경 동창

유미숙(성악 84)·이효진(성악 90)·정영하(피아노 92)·고혜영(성악 95)·우수연(성악 00)·최정윤(성악 02)·양윤주(성악 04)·박이연(성악 04) 동창

모교 음대 남덕우 명예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 복스 아카데미카의 제11회 정기연주가 5월 23일(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진행되었다. 복스 아카데미카는 성악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학구적인



복스 아카데미카 동창들

레퍼토리 개발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다.

조기숙(무용 85) 동창

5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모교 삼성홀에서 조기숙 NEW발레단이 <그녀가 운다 – 여신 무산 신녀>를 공연하였다.



조기숙 동창

이선기(식영 86) 동창

전자신문인터넷 대표 이선기 동창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8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선기 동창

정순희(가관 86)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순희 동창이 4월 30일(토) 열린 ‘2016 한국소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한국소비자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정동창은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학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순희 동창

정화영(기독 86) 동창

미국 내 신학계와 교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정화영 동창은 5월 26일(목) 모교 신학대학원에서



정화영 동창

재학생과 후배 동창들을 대상으로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론(Christology from a Feminist Perspective)’에 관한 울림 있는 특강을 하였다.

김영주(의학 88) 동창

조산 위험성 진단 키트와 진단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신생아의 사망과 심각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산전 진단 시약 및 진단 키트에 관한 것으로, ‘보건산업 IP 인큐베이팅/기술 사업화 지원’에도 선정되어 해외 특허료 지원을 받게 되었다.



김영주 동창

오희숙(동양 88) 동창

‘감사로 여는 봄’이라는 주제로 4월 16일(토)부터 21일(목)까지 갤러리에끌레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장정아 동창

장정아(조소 91)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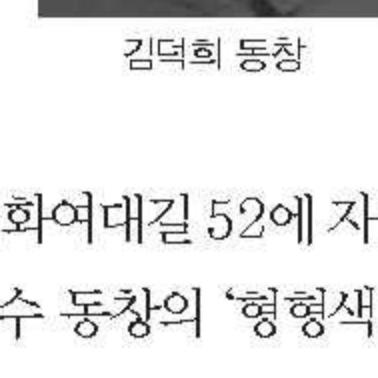
4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 Able Fine Art NewYork Gallery에서 ‘In the World, But Beyond the World’라는 주제로 서양화 작품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김덕희 동창

김덕희(도예 92) 동창

통인 옥션 화랑에서 4월 20일(수)부터 4월 25일(월)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이경수(도예 92) 동창

5월 3일(화)부터 14일(토)까지 이화여대길 52에 자리잡은 인큐베이터 52에서 이경수 동창의 ‘형형색색’ 전이 열렸다.

김정아(동양 93) 동창

5월 21일(토)부터 6월 1일(수)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행복의 향연, 김정아 전’을 개최하였다.



김정아 동창

김혜정(도예 93) 동창

‘making is thinking is making’이라는 주제로 2016년 밀라노 트리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는 4월 2일(토)부터 9월 12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희(동양 93) 동창

5월 23일(월)부터 6월 5일(일)까지 ‘수영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평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민정(동양 96) 동창

3월 3일(목)부터 4월 2일(토)까지 ‘강남도원 2016, 서울’이라는 주제로 갤러리 조은에서 전시하였다.

정효진(동양 96) 동창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예송미술관에서 5월 2일(월)부터 18일(수)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조양희(무용 96) 동창

6월 2일(목) 모교 삼성홀에서 현대무용단-탐의 제36회 정기공연이 있었다. 공연 작품은 조양희 동창의 안무 <상영시간>이다.



조양희 동창

한유정(장미 96) 동창

모교 융합보건학과의 초청으로 4월 25일(월) 학문관 소극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미쳐야 한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한 동창은 한국인 최초로 할리우드에 입성한 미술총감독이다.

김선주(피아노 98) 동창

5월 22일(일)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 ‘Time & Space’ 공연을 하였다.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기부하였다.



김선주 동창

진세정(사학 99)·송인희(영교 03) 동창

국제학 전공 교수 진세정 동창과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송인희 동창이 하버드-옌칭연구소



진세정 동창



송인희 동창

주관 ‘2016–2017년도 방문학자 프로그램’과 ‘방문대학원생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각각 선정되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3학기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교수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연구활동을 지원받게 되며 하버드 대 혹은 타 대학 교수진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서경(동양 00) 동창

4월 28일(목)부터 5월 27일(금)까지 홍콩 Pearl Lam 갤러리에서 ‘Foot and Moon’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열었다.

이지선(유교 01) 동창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던 이지선 동창이 6월 10일(금) 미국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동창은 귀국해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지선 동창

김아영(도예 04) 동창

김아영 동창이 자신의 작업실 ‘니닉크라프트’의 오픈 스튜디오 전시를 4월 4일(월)부터 23일(토)까지 열었다.



김아영 동창

김초혜(동양 04) 동창

6월 7일(화)부터 7월 10일(일)까지 서울 연희동의 ‘라뮤즈 드 연희’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김초혜 동창

태정현(의학 05) 동창

이대목동병원 건진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태정현 동창이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IMKASID2016)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태정현 동창

조장은(동양 06) 동창

최근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 한국엘러간의 필러 제품 ‘쥬비덤’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미용 관련 제품의 모델을 연예인 대신 인물화로 삼은 것은 파격적인 일이다.



조장은 동창

김지희(동양 07) 동창

5월 11일(수)부터 31일(화)까지 서울 표갤러리에서 ‘Floating Wonderland’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정민 동창

이정민(대학원 07) 동창

세계환경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제24회 문학작품공모 시·시조 부문에 당선되어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김영주(동양 10) 동창

5월 11(수)부터 17일(화)까지 갤러리 도스에서 ‘Intermission’이라는 전시를 열었다.

김수정(사회과교육 11)·박현서(사회과교육 15) 동창

모교 박사과정

김수정 동창과
석사과정 박현
서 동창이 한국
국제 협력 단
(KOICA)에서



김수정 동창



박현서 동창

주관한 ‘제13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현상 공모’에서 장려상이자 최고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2인은 소정의 상금과 수원국 탐방, 코이카 입사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아름(의전원 12) 동창

4월 18일(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2016년 미국신경과학회(AAN) 학술대회에서 ‘기능적 뇌연결성 분석을 통한 측두엽 뇌전증 환자의 기억력 감퇴기전 연구’를 주제로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전공의로 재직 중이다.



정아름 동창

이현주(대학원 13) 동창

모교 통계학과 박사과정인 이현주 동창이 ‘제2회 BK21플러스 사업’의 우수 참여 대학원생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 18일(금)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신진 연구인력 중 유능한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격려하고자 우수 참여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을 선발하여 시상했다.



이현주 동창

우리의 은퇴 후 여행기 민병희(영문 60)

홍용식, 민병희 공저 / 엘컴퍼니

- 민병희(인하대 명예교수) 동창이 남편 홍용식 인하대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우리의 은퇴 후 여행기』 제3권을 발간하였다.

**나의 인연 이야기** 신인령(법학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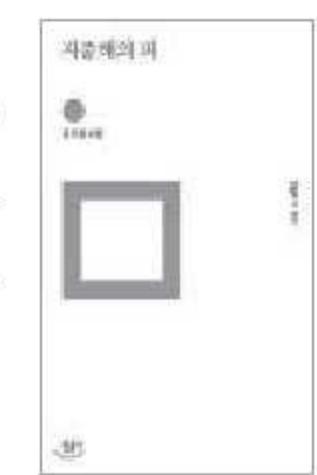
신인령 지음 / 자식공작소

- 신인령 전 총장이 그간 여러 자리에서 발표했던 다양한 형식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강원용 목사, 리영희 선생, 법정 스님 등 신인령 전 총장이 맺은 소중한 인연인 동시에 우리 시대가 기억하는 인물들에 관한 글이다.

**지중해의 피** 강기원(정외 79)

강기원 지음 / 민음사

- 강기원 동창의 네 번째 시집 『지중해의 피』가 출간되었다. 또한 강동창은 '출판놀이'의 동시 공모전에 당선되어 '주머니 속 동시집' 『토마토 개구리』를 출간하였다.

**중부 유럽 경제사** 김영완(사학 81)

양동휴, 김영완 공저 / 미지북스

- 김영완 동창이 부군인 양동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중부 유럽 경제사』를 저술했다. 역동적인 중부 유럽의 역사와 경제를 대중적인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책이다.

**유아 창의성, 융합으로 키운다** 기순신(교육 83)

기순신 지음 / 펌앤팝북스

- 영재교육 전문가이자 명지대 교수인 기순신 동창이 유아 교육 지침서를 펴냈다. 기 동창은 이 책에서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번역 트러블** 김미현(국문 88)

김미현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서나 사상, 시대나 사회적 이념을 기반으로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해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문화번역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내 마음에 아이가 산다** 권정은(서양 91)

권정은 지음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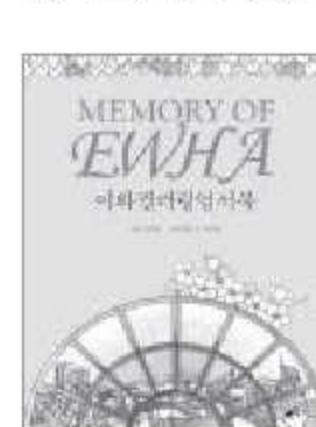
- 미술교육자 권정은 동창이 펴낸 에세이.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의 그림을 진지하게 읽고, 그로부터 기쁨과 위안, 치유를 받았던 경험을 들려준다.

**Memory of EWHA 이화컬러링북, 이화컬러링 엽서북**

김주희(국교 14)·박윤지(동양 14)·박윤하(동양 14)

김주희 그림, 박윤지·박윤하 채색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모교 캠퍼스를 주제로 한 컬러링북과 컬러링엽서북이다. 유구한 전통의 파이퍼홀, 고즈넉한 정취의 진선미관, 박물관의 아름다운 소장품들이 컬러링 그림으로 되살아났다.



*이화여대 창립 1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피부, 아무리 좋다는 걸 써봐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결론은 isoi

피부개선은 병원에 가면 확실하죠.
하지만 평소에 자연유래성분만을 쓴다면
화장품으로도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피부는 100% 자연이니까요.
건조함, 피부결, 잡티 –
일반 화장품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아이소이로 바꿔보세요!

isoi

- 경제 11 슈퍼모델 이현이 -

isoi 화장품, 무엇이 다를까요?



유해성이 의심되는
성분은 단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전제품이 독일
'더마테스트' 임상을
통과했습니다



isoi 독일연구소와
30년 노하우가
함께합니다



미국 유기농 마켓
홀푸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이소이는? I'm SO Intelligent의 약자로 피부개선 효과를 높인 '착한 성분'으로 '피부지상주의'를 실현하는 자연유래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www.isoi.co.kr ☎ 1544-4302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